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 보구곶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솜리골 작은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O 케이스포 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상반기 |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꼭 필요한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일상 속 미술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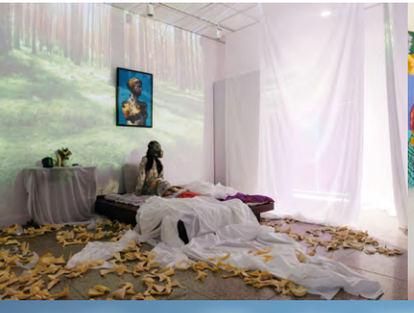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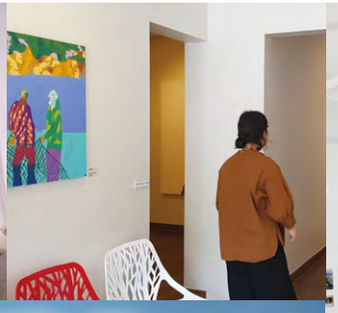
시행 첫해인 2015년 전국 곳곳 6개의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2016년 3개의 작은미술관이, 2017년 2개의 작은미술관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 친구네, 집 근처, 고향 골목에 자리 잡은 미술관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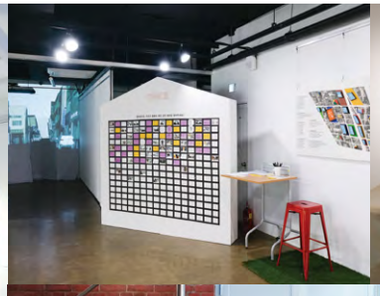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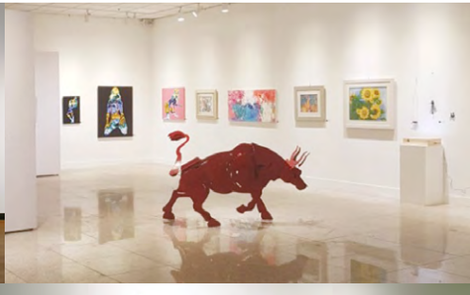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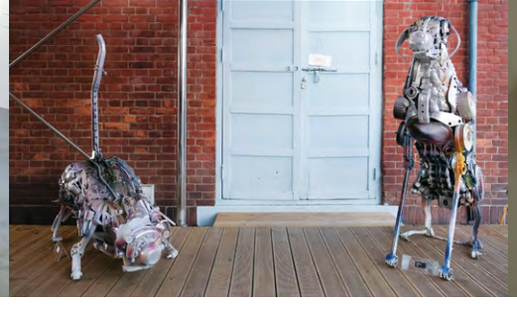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Contents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4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및 성과 6

2017 작은미술관 성과보고회 12

신규 미술관 2017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20

작은미술관 보구곶 40

기존 미술관 2015-2016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60

솜리골 작은미술관 76

중동 작은미술관 92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108

우리미술관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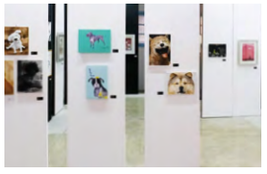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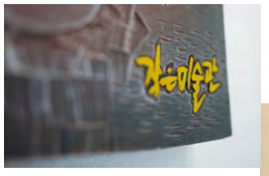


처음 동네에 작은미술관이 열리던 날, 마을주민들은 그 작은 공간이 자신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조촐하게 열린 개관 기념 잔치를 즐겼고, 어느 날에는 동네의 모습을 담겠다는 예술가들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예술이 무엇인지, 작은미술관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차츰 깨닫게 되면서는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려 전시도 해보고, 난생 처음 뜨개질로 이웃 형님, 아우들과 함께 대형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은 그림은 물론 연극, 노래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을 쑥쑥 키워나갔다.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은 아직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른 미술관들처럼 똑같이 미술 전시를 한다는 점에서 미술관이라는 위치에서도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미술관을 조성하고 운영한 지난 3년동안, 작은미술관은 그 곁에 있는 많은 주민의 삶에 자연스레 예술을 스며들게 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주민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주민들이 제집 드나들 듯 예술을 가깝게 만나고, 함께 예술로 꿈꾸게 하는 공간. 어쩌면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은 굳이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주민들이 예술로 각자의 정체성을 채우고 일깨워 가는 공간일지도 모른다.







첫해에 동네는 새로 생겨난 작은미술관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였다.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삭막했던 동네가 이 아담한 예술 공간으로 인해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환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해가 지나가는 지금,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거점이 되어 점점 예술로 동네를 물들이고 있다.

2017년에는 김포와 사천에도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책에는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선정된 7개의 작은미술관 이야기를 담았다. 사업의 시작부터 같이한 3년차 미술관부터 이제 막 문을 연 미술관까지, 이들이 동네에 예술을 입히고 물들인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본다.





작은미술관
사업개요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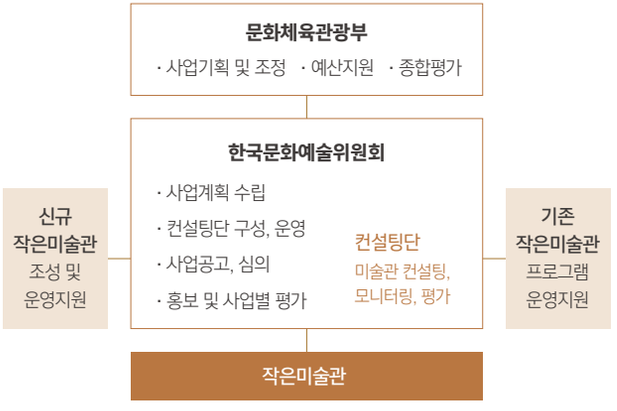
사업개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

하나, 등록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중앙-지역 간 협업으로 공공생활 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둘, 해당 지역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자생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 기존 생활문화 공간을 활용해 공간 조성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넷, 지역의 열악한 전시공간(문예회관 등)을 보완하고자 '작은미술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작은미술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Process



성과와 비전

시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시각예술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 도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곳의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변화시키고 프로그램 진행과 전시 관람을 통해 주민의 일상 생활공간을 보다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주민과 작가가 함께 만드는 전시로 주민들의 단순한 예술적 경험을 넘어 성취감과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문화 소외 지역에서 문화 선도 지역으로 변화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소비하여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이 문화거점 공간으로의 역할 담당

숫자로 보는
성과
2018년 3월 기준

지역
전국

작은미술관 수
7 개소 2017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선정

관람객 수
65,933 명

경남 사천시 8,000
대전 중구 2,518
전북 익산시 1,350
경남 남해군 10,000
경기 김포시 874
강원 정선군 40,232
인천 동구 2,959

행사전시 건수
39 건 프로그램 19건

경남 사천시 3
프로그램 2
대전 중구 6
프로그램 4
전북 익산시 7
경남 남해군 6
프로그램 1
경기 김포시 3
프로그램 3
강원 정선군 4
프로그램 5
인천 동구 10
프로그램 4

언론보도 건수
276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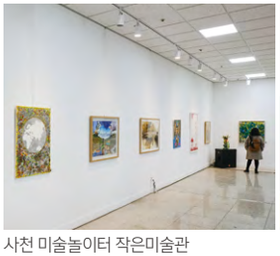
경남 사천시 29
대전 중구 62
전북 익산시 72
경남 남해군 16
경기 김포시 21
강원 정선군 9
인천 동구 67

전국
작은미술관
정보

기관명	지역	주요성과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경남 사천시	· 개관 : 2018년 1월 5일 · 공간 조성 : 창고로 사용하던 사천문화재단 1층 리모델링 · 특징 : 지역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사천을 찾는 관광객 대상 전시, 프로그램 운영 · 운영지원 : 2017년
작은미술관 보구곶	경기 김포시	· 개관 : 2017년 12월 7일 · 공간 조성 : 접경지역 내 유휴 공간인 민방위대피소 활용 · 특징 : 국내 접경지역으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일상의 물리적, 심리적 이미지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미술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 운영지원 : 2017년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 중구	· 사전개관 : 2016년 10월 11일 ~ 10월 24일 · 정식개관 : 2017년 2월 2일 · 공간 조성 : 구 중앙동주민센터(보훈회관) 리모델링 · 특징 : 대전역 앞 공동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단체와 작가 간 협업 · 운영지원 : 2016~2017년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강원 정선군	· 개관 : 2016년 11월 19일 · 공간 조성 :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일원 리모델링 · 특징 :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변화하는 강원도 역사를 표현 · 운영지원 : 2016~2017년
솜리골 작은미술관	전북 익산시	· 개관 : 2016년 10월 21일 · 공간 조성 : 익산 익옥수리조합 창고(등록문화재) 리모델링 · 특징 : 일제강점기 역사적 공간(수탈지)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 운영지원 : 2016~2017년

전국
작은미술관
정보

기관명	지역	주요성과
우리미술관	인천 동구	· 개관 : 2015년 11월 28일 · 공간 조성 : 일부 공가(空家, 지자체 소유)의 내외부 활용 · 특징 : 청년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개발,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하여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운영지원 : 2015~2017년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경남 남해군	· 개관 : 2015년 10월 19일 · 공간 조성 : 구 보건진료소(유휴 공간) 리모델링 · 특징 : 남해의 자연풍경 활용하여 남해바래길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근 지역작가 발굴 · 운영지원 : 2015~2017년
두드림 작은미술관	경기 동두천시	· 개관 : 2015년 11월 16일 · 공간 조성 : 동두천시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패션지원센터 1층 리모델링 · 특징 : 건물 특징에 맞게 '예술+패션' 주제로 미술관 운영 · 운영지원 : 2015~2016년
두계 장옥미술관	충남 계룡시	· 개관 : 2015년 11월 6일 · 공간 조성 : 두계시장 창고로 방치된 옛 장옥 리모델링 · 특징 : '오일장에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자'라는 슬로건. 작은미술관을 통해 이름뿐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 운영지원 : 2015년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전남 고흥군	· 개관 : 2015년 10월 20일 · 공간 조성 : 소록도병원 구 감금실과 세탁실 리모델링 · 특징 : 김주현, 이명호, 한성필 작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과 워크숍 진행 · 운영지원 : 2015년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경기 안산시	· 개관 : 2015년 11월 2일 · 공간 조성 : 공업 단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분소 활용 · 특징 : 외부에 큐브형 전시공간을 별도 설치 · 운영지원 : 2015년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 보구곶


중동 작은미술관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솜리골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


두계 장옥미술관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2017 작은미술관 성과보고회

작은미술관 3년, 미래를 말하다

2018년 3월 28일, 2017 작은미술관 사업을 마무리하며 서로 성과를 나누기 위해 25명의 기획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였다. 2017년도 사업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작은미술관의 미래를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다.

3년의 본보기, 우리미술관에서의 만남

오전 11시, 인천 우리미술관 교육관에서는 인천, 김포, 대전, 정선, 사천, 남해 지역 작은미술관에서 온 기획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 아니라 2015년 작은미술관 사업에 처음 선정된 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미술관에서 함께 준비한 행사라 더욱 의미 있었다. 우리미술관을 운영하는 인천문화재단 구영은 기획자와 김병훈 공간문화팀장은 먼저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전시공간을 비롯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스튜디오를 함께 둘러보며 소개했다. 우리미술관은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아티스트가 직접 전시를 의뢰하고, 커뮤니티 아트를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주민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모인 이들에게 귀감을 주었다.











2017 작은미술관의 움직임

2017년 사업에는 이날 참여하지 못한 익산 솜리골 작은미술관을 포함한 총 7개 지역 미술관이 선정되었다. 그중 김포 작은미술관 보구곶과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은 2017년 새롭게 조성됐다. 먼저 3년 동안 작은미술관을 운영해 온 인천과 남해 작은미술관이 발표를 맡았다. 인천 우리미술관은 처음 교육관과 작은미술관에서부터 시작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인기, 레지던시와 스튜디오 공간 오픈 등 3년간 성장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지역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츰차츰 지역 예술과들과 네트워킹하며 자생의 길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다음 발표는 2년 차 작은미술관인 대전과 정선이 맡았다. 먼저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과정과 문인들과 함께 교류하여 전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에 대해 설명했다. 정선 미술터미널 미술관은 터미널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터미널에서 직접 받고, 물품을 보내 작품을 의뢰하고, 전시하는 독특한 형태를 사진과 함께 잘 보여주었다. 새롭게 조성한 김포와 사천은 조성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포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전시는 물론,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뜨개질 체험 프로그램의 대흥행으로 주민 화합을 이끄는 사랑방으로서 빠르게 자리 잡은 사연을 재치 있게 발표했다. 사천 미술놀이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사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한 환경전시부터 VR 등 다양한 체험공간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금세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전영웅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작은미술관이 소외 지역뿐 아니라 지역 문화의 기반, 예술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다

작은미술관들이 발표를 마친 후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있었다. 3년간 꾸준히 작은미술관 자문위원을 맡아온 신호섭 건축가와 유알아트 김영현 대표가 참석해 각 미술관들에 대한 활동 평가와 소감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것은 작은미술관이 어떻게 다른 국공립, 사립 미술관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역 고유색을 담고, 지역 기관과 탄탄히 연결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작은미술관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며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이에 작은미술관 기획자들 역시 작은미술관 브랜드만의 확고한 마케팅, 안정적이고 꾸준한 예산 지원, 인력 충원 지원 등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새로 사업의 실무를 맡은 김태희 담당자가 2018년 작은미술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변경된 예산안과 더불어 그간 작은미술관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던 실적 보고를 완화하고 예산 매칭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또 우수 작은미술관 선정 및 시상, 작은미술관 협의체 운영 등 작은미술관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들을 담았다. 작은미술관 사업 전반을 이끌어 온 시각예술부 황진수 부장은 “작은미술관은 모두의 열정이 만들었고, 그래서 3년간 이어올 수 있었다”면서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미술관들이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고 의지를 다졌던 이 자리는 3년의 성과와 더불어 작은미술관이 지속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실핏줄처럼 우리 마을에 문화예술을 전하는 작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장 **황진수**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미술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국립 미술관들이 미술공간의 중심으로서 심장 역할을 한다면, 광역 지역 단위의 공립 미술관들은 정맥과 동맥의 역할을, 전국의 많은 사립 미술관, 비영리 전시공간, 문예회관 전시실, 기타 전시실들이 주요 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먼 마을까지 미술이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작은미술관 사업)이다.

작은미술관 사업은 시각예술 문화공간이 절실한 지역의 유휴 공공 공간들을 작은 미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하여 모든 국민이 미술이라는 예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작은미술관 컨설팅단'과 함께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기금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그해에 비어있던 동두천의 패션지원센터, 고흥의 소록도병원, 안산의 주민센터 분소, 인천 동구의 공가, 충남 계룡의 장옥, 경남 남해의 옛 보건소를 작고도 아름다운 미술공간으로 변모시켰고, 약 2만 3000명의 관객들이 방문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도 전국 공모를 통하여 강원도 정선의 아트터미널 작은미술관, 대전의 중동 작은미술관, 그리고 전북 익산의 솜리골 작은미술관을 추가 조성하였다. 이들은 각각 버스터미널 내 빈 공간, 유휴 주민센터, 옛 수리조합과 방공호를 작은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약 3만 4000여 명의 관객들이 다녀간 바 있다. 2017년엔 김포 보구곶리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경남 사천의 사천문화재단 내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추가 조성하였으며,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원 도심과 옛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문화적 지역재생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건강한 국가가 되고, 마을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원 도심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보통 시민들이 사는 방방곡곡 어디에나 문화예술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실핏줄을 타고 찾아가야 한다. 작은 마을에서, 동네 주변 어느 곳에서나 찾아갈 수 있는 작은미술관이 많아야 하는 이유다.

지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했고,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헌신이 필요했다. 예술위와 컨설팅단은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조성된 작은미술관들을 살펴보았고, 많은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 분들과 더불어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이제 '작은미술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 사방천지의 봄꽃들처럼 전국에 활짝 피어난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까지 뿌려진 작은미술관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고목처럼 튼튼하게 성장하고, 또 다른 작은 씨앗들을 퍼뜨려 우리 주변을 문화예술로 풍성한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어 본다.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신규 미술관 2017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7

sccf.or.kr(사천문화재단)



예술이 있는 삼천포에 푹 빠지다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표현은 주변의 다른 지역을 가려다 엉뚱한 장소인 '삼천포'에 도착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경상남도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항구도시 삼천포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삼천포에 빠진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할지도 모른다. 바로 '삼천포의 아름다운 풍광에 빠진다'는 의미로 말이다. 빼어난 일몰의 실안노을길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숨겨 두었다는 대방진 굴항, '한국의 금문교'라 불리는 삼천포대교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삼천포대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에 선정된 명소로 어둠이 내려앉으면 대교에 설치된 조명이 켜져 멋진 야경을 연출한다. 특히 삼천포대교 입구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은 한려해상의 자연환경과 삼천포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하늘과 바다의 풍경이 걷던 발걸음을 멈춰 서게 만드는 이곳에 '2017년 작은미술관 운영 및 조성사업(이하 작은미술관 사업)'으로 작은미술관이 들어서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불어오기 시작했다. 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불현듯 만나는 예술작품들은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삼천포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침체된 지역에 피어난 문화예술의 꽃

경상남도 사천 삼천포 인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청정해역과 갯벌에서 풍부한 어패류를 수확하며 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다. 3번 국도가 시작되는 곳이자 진주와 삼천포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되면서 항구도시로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경남의 경제권이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삼선이 폐지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삼천포 연안 인근에는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어획량마저 줄었다. 1900년대부터 형성된 지역인 삼천포구항과 주변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점점 낡아 갔고, 시청이 이전하면서 상권은 급속도로 활력을 잃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음에도 주민들과 사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이곳은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2017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천시가 제안한 삼천포구항 재생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시민들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100년 역사를 지닌 삼천포구항 중심 시가지에 바다 관광문화 조성, 어시장 활성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주거 및 생활개선 등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와 발맞춰 사천시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지역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자 삼천포대교공원에 위치한 재단의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층은 전시실, 2층은 문화예술 창작소, 3층은 문화재단 사무실로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2017년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며 7000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1층에 창고로 사용하던 320여 평방미터의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노력 끝에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이하 사천 미술놀이터)'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천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출발한 작은미술관

2018년 1월 5일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현장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한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사천 미술놀이터'의 시작을 응원해주었다. 테이프 커팅과 사업 경과보고, 축하 떡 절단식에 이어 많은 사람들의 축하 메세지가 전해졌다. 재단 건물에 문화예술 시설을 단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도근 사천시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1층에는 상설전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과 2층 창작공간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창작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 뜻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부디 이곳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곳간이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새해 인사와 함께 개관 소감을 전했다. 이어 사천문화재단 강의태 대표는 "작은미술관을 통해 지역 예술가에게는 미술품 전시 기회를, 시민에게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라며 작은미술관을 향한 기대를 밝혔다.

개관식의 공식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작품감상에 앞서 사천 미술놀이터 개막식과 기획전시를 준비한 사천문화재단 배스나 담당자는 관람객을 위해 전시에 대한 설명과 감상 포인트, 작품을 보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일러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개막전은 같은 주제로 다양한 작가들이 작품을 펼친 만큼 얼마나 다채롭게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팁을 전달하며, 작품을 관람할 때는 작품의 대각선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담당자의 작품설명을 경청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평소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작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로 한껏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

환경의 가치에 주목한 기획전시

사천 미술놀이터는 사천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환경'을 주제로 세 가지 형태의 기획전시를 선보였다. 개관식에 맞춰 시작되는 첫 전시는 <예술, 환경을 그리다>전으로 국내 유일의 국제환경미술제의 콘텐츠를 빌려와 구성한 전시다. 국제환경미술제는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후원을 받아 2015년부터 '해금강 테마박물관'을 필두로 순회전시를 펼치고 있다. 현대인에게 그간 잊고 있었던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간과 환경의 공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한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자메이카, 튀니지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25개국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인간, 자연, 환경, 공존'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두 번째 전시는 그동안 기회가 없어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작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주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린 <Pollution City>전시는 청년작가들이 기획한 '오염도시'를 주제로 한 설치 미술전이다. 생활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미디어를 이용한 정크아트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정운식, 김송, 최봉석 3인으로 구성된 지역의 청년작가는 각종 미술전에서 다수의 수상은 물론 개인전까지 연촉망받는 작가들로, 방독면을 쓴 마네킹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등 설치미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 번째 전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사천문화재단이 주관한 <환경미술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기성작가에게는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공모전이다. 심사과정에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나이와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오직 작품만으로 평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을 전시했다. 그 결과, 전공자가 아니라 전시가 처음인 원석에 가까운 신인작가를 두 명이나 발굴할 수 있었다. 사천뿐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골고루 섞인 이번 전시는 동양화, 서양화, 조형작품, 오토마타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관람객들의 참여로 소통하다

사천 미술놀이터에는 전시뿐 아니라 샌드아트와 VR 가상현실 페인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주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청소년, 연인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을 즐기며 크게 호응했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는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지만, 어린 시절 놀이터 모래 위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던 추억을 회상하며 체험을 즐기는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VR 가상현실 페인팅은 VR기기를 쓰고 가상의 현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입체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이다. 이 체험이 좀 더 특별한 것은 관람객이 직접 그린 작품들을 모아 다음 작품으로 전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사천 미술놀이터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사천문화재단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이들 중 50인을 포토제닉상으로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 것이다. 이벤트를 통해 전송된 사진들 역시 모자이크로 조합한 대형 캔버스로 제작해 미술관에 전시했다. 이렇게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한 체험 결과를 2차 전시콘텐츠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2018년 이어지는 전시 역시 사천 시내의 중·고등학생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2차 전시콘텐츠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준비 중이다.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놀이터

사천 미술놀이터가 지역에 개관하자 주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전시가 거듭될수록 미술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가 점차 늘어났고, 미술관은 삼천포대교공원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미술관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했고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기도 했다. 특히 미술관에 놀러 가자고 부모님을 졸라댈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가끔 체험을 즐기는 어린이들이 관람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담당자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천 미술놀이터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재미있는 미술관'이기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지역에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미술놀이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 미술관은 놀이터처럼 신나는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지원을 받는 동안 사천 미술놀이터가 더욱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지려 한다.

머지않아 미술관이 있는 삼천포대교공원에는 사천시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사천 바다 케이블카' 정류장이 완성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쪽빛 바다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가 4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하면 작은미술관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그를 지원하는 문화재단이 공존하는 특별한 미술관인 만큼 지역 주민과 관광객, 작가들이 함께 미술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문화 놀이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천문화재단 **배스나**

고려 현종의 고향이라는 '풍패지향'과 천년의 역사성을 가진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사천은 자연환경에 비해 문화로 즐길 거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12만 명의 사천 시민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영화관 두 곳, 개인 미술관 한 곳이 전부였죠. 미술관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산책하다 들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어 뿌듯하고 기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미술관을 생소하게 느끼고 미술관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해답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작가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첫 번째 사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천문화재단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저는 서양화 작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상 전업 작가로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미약하지만 다른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작은미술관 사업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문화 소외 지역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음지에 있는 신인작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기성작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사천 미술놀이터 작은미술관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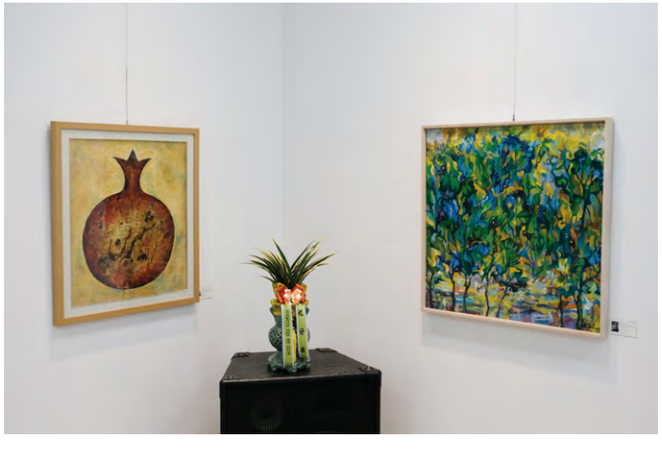

사천작은미술관 개관
2018. 1. 5.




Environmental Connectivity









전 시 명 <개관전시_ 예술, 환경을 그리다>전

전시기간 2018. 1. 5 ~ 1. 28

전시작가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자메이카, 튀니지 등 25개국 70여 명









전 시 명 <Pollution City>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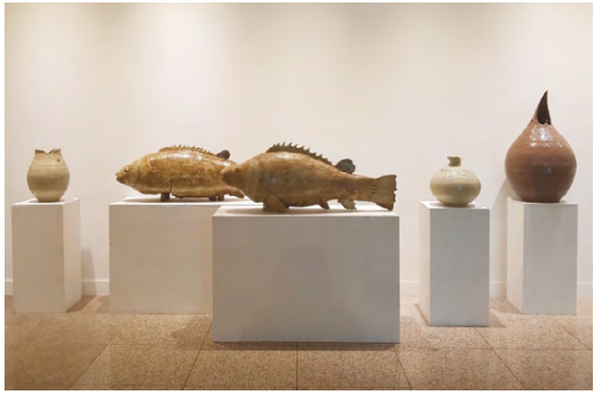
전시기간 2018. 1. 31 ~ 2. 25

전시작가 정윤식, 김송, 최봉석











전 시 명 <환경미술전>

전시기간 2018. 3. 1 ~ 3. 31

전시작가 공모전 선정 15인

연계 체험 프로그램 샌드 아트 교육, VR 체험 프로그램



작은미술관 보구곶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373

instagram.com/bogugot



작지만 크고, 끝이지만 시작인 곳

작은미술관 보구곶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오른쪽에 있는 문수산성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한강이 서해와 만나는 끝에 보구곶리가 있다. 대부분 주민이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이 마을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다. 그것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 보이는 북한의 산등성이와 철책선, 유사시 폭격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다. 마을 입구에 있는 주민대피시설은 방어를 위해 지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북쪽으로는 커다란 방어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새삼 이곳이 접경지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난 8월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남북이 긴장 상태일 때 옥상에 아주 큰 확성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곳에 폭격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을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아 전국 최초로 주민대피시설을 활용한 미술관을 만들기로 했다. 분단이 불러온 긴장으로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단 접경 마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며, 그런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일궈온 보구곶리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한 작은미술관이었다.

지역 특징을 고려한 콘셉트와 공간 디자인

민방위대피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될, 작은미술관 보구곶을 조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민방위대피시설로서의 기본사항을 준수하면서 미술품 전시, 미술교육, 주민자치 활동, 공연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 시내와 22km 이상 떨어진 문화소외 지역이라는 특성, 한강의 끝이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보구곶리 마을주민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했다.

어떤 이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알 수 없는 신비감, 난해함 등으로 멀게만 느끼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그런 거리감 때문에 불편하고 경직된 곳으로 여겨 마치 특정 사람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보구곶리와 같은 농촌 마을에 생긴 낯선 미술관과 미술이라는 활동이 높은 연령층의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마을주민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각도로 접근했고, 고심 끝에 '작은미술관 보구곶'만의 주요 콘셉트를 잡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그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보는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쾌적하고 편안하며 농사를 짓는 일상과는 달리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미술관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문화시설로 변화시킨 사례가 처음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작가 섭외나 운영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작은미술관 보구곶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미술관의 로고를 개발해 보구곶의 정체성을 더했다. 또한, 전시와 교육 활동에 적합한 조명시설과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전에 마을주민들이 간혹 주민대피시설에서 마을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냉기 때문에 바닥에 단열비닐을 깔고 식사를 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술관 안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로 포인트를 주었다. 평상시 즐기는 티타임이나 마을 전체가 모이는 마을잔치 등, 이 공간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넓은 벽면에 최대한 많은 작품을 걸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화장실과 창고 입구를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정도로만 가구를 배치했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여러 부서 간의 공조로 리모델링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어느덧 주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개관식 날이 다가왔다. 예전과 다름없이 냉랭하고 습한 대피소를 생각하고 찾아왔던 마을주민은 밝은 조명과 따뜻해진 공간, 이웃과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난 미술관에 감탄하며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을잔치가 된 개관식 날

2017년 12월 7일 오전 10시,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 작은미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작은미술관답게 작고 간소한 개관식을 준비했지만, 마을주민들 덕분에 그야말로 북적북적한 마을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보구곶리 부녀회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한 것이다. 보통 미술관 개관식이라 하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와 음료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동탯국과 보쌈, 숭어회, 과일과 떡 등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어머니들을 통해 순식간에 차려졌다. 개관을 축하하러 온 내빈, 참여 작가와 담당자들은 마을주민의 넘치는 정을 느끼며 따뜻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본격적인 개관식 사회는 김포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박정현 팀장이 맡았다. 개관식에 모인 마을주민에게 작은미술관 사업 배경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작은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분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보구곶리에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김포시의 이홍균 부시장을 비롯해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대표이사, 김포예술단체 총연합회, 김포미술협회,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김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개관식 자리를 빛냈다. 또한, 민방위 시설을 흔쾌히 미술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행정지원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준 김포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작은미술관 운영 스태프와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

님, 부녀회장님, 총무, 참여 작가들에게도 그동안의 수고와 고마움을 전했다. 김포시 이홍균 부시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활용한 미술관이 생겨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창대하지 않고 조그마합니다. 작은 담장의 벽화들이 모여 벽화마을이 되고, 문화의 거리로 확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예술이 생기며 활용되는 공간, 문화의 마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고 개관 소감을 전했다. 개관전시를 기획한 김혜란 작가는 “보구곶 마을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좋은 작품들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미술관 보구곶이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공간을 꾸미려고 합니다. 문턱 없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주민들에 대해 감사와 기대를 나타냈다. 김포에 있는 20개의 주민대피시설 중 보구곶리가 미술관으로 바뀔 수 있던 배경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임과 동시에 예술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마을주민은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보구곶 풍경과 사물 그리고 사람을 작품에 담다

작은미술관은 주민들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장 친숙한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 세 번의 전시를 기획했다. 먼저 ‘보구곶의 아름다운 풍경’ – ‘보구곶에서 만나는 사물’ – ‘보구곶을 일구는 사람들’ 순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점차 전시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시선을 지닌 외부 작가들은 작품을 위해 동네를 관찰하고, 직접 주민들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 두 달간 열린 첫 번째 전시는 <보구곶 풍경>으로 미술관이라는 낯선 공간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과 이웃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전시였다. 그림은 사진과 영상과는 달리 경험과 기억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다른 이가 해석한 그림을 통해 익숙한 대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매일 보는 마당의 나팔꽃이나 무심코 담벼락에 세워둔 짐 더미, 익숙한 도로와 들녘, 그리고 산등성이와 만나는 하늘이 다른 이의 붓끝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그린다’는 것이 친숙한 행위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다. 농사일로 채워진 주민들의 일상에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그림이 조금씩 들어와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참여 작가 4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어쩌면 특별할 것이 없는 농촌의 일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전시인 <보구곶 사물>은 2018년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렸다. 마을 풍경에서 주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정에 있는 사물을 그리는 전시로, 주민들은 ‘미술관 작가님’이라고 하면 어김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기도 했다. 4명의 작가는 이웃들의 집에 다니며 주민들의 일상과 추억을 듣고 추억에 얽힌 사물을 그렸다. 그 소문을 들은 한 어르신은 미술관으로 직접 자신의 약혼 사진을 들고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은 일도 있었다. 의식주를 구성하는 보구곶 마을의 살림들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시대의 단면과 사회적 욕망, 유행의 풍조와 소비문화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들이 그린 사물들은 녹록지 않은 시간의 흐름에 편입되면서 저마다 일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 번째 전시는 3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린 <Fantastic Fictures 보구곶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전시로 그동안 만났던 보구곶리 이웃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작가들은 이웃의 얼굴과 표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환상적인 모습을 찾고자 주민들과 소통하며 작가 고유의 감성과 개성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다.

주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다가간 세 번의 기획전을 거치며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어느새 미술관을 가까운 친구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농한기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흥행 돌풍

겨울 농한기에는 보구곶리 주민들에게는 이렇다 할 소일거리가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한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먼저 추운 겨울에 어울리기도 하고, 민방위대피소의 차가운 이미지를 따뜻한 소재로 감싸보고자 '니트니트, 온기담기'라는 대바늘 뜨게 강좌를 시작했다. '뜨개질'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마을 어머니들만 참여한 점이 아쉬웠지만, 이는 보구곶 어머니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넣어 줄 오색 복주머니를 총 3회에 걸쳐 교육할 계획이었는데, 처음엔 자신 없다던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능숙하게 해내서 단 하루 만에 복주머니가 완성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복주머니 외에도 쁘띠머플러, 수세미 아이템을 추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90세 할머니까지 참여하면서 작은미술관 워크숍은 40세부터 90세까지 함께 뜨개질로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냈던 그동안의 농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다는 어머니들의 표정에서 수업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있었다. 하나하나씩 완성되어가는 뜨개질도 보람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웃을 수 있으므로 행복했다. 이후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2차 프로그램인 코바늘 기초 과정과 모티브 강좌가 더해졌다. 이 역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금세 커다란 공동 작품을 완성해 냈다. 뜨개질 프로그램은 마을 남자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워크숍은 붓글씨나 그림처럼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나중에 옥상에서 개최할 상상대회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미술관에 도화지와 채색 도구를 비치해두고 방문객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설 연휴에는 모처럼 고향에 방문한 가족들과 연하장을 만들었고,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미술관이 불러온 농촌 마을의 변화

뜨개질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3회 차 수업이 끝나고, 미술관 관계자들에게 비닐봉지를 하나 툭 건넸다.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주민이 준 봉투 안에는 세뱃돈이 들어있는 복주머니 두 개가 들어있었다. 어느새 작은미술관과 주민과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보구곶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명절이면 타지에서 자식들이 부모님 댁인 이곳을 찾는다. 그래서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설 연휴 내내 미술관을 열어두었다. 멀리 논산에 사는 한 주민의 아들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어머니 걱정이 많았는데, 마을에 이런 곳이 생겨서 적적할 때 뜨개질을 배우며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자연스레 도슨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그간 미술관에 벌어졌던 일들을 자랑하듯 들려주기도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작은미술관이 마을에서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들은 자녀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늘 지나는 마을길과 나무, 이웃집 지붕 그림을 전시하며 주민들과의 문턱을 낮추었고, 그림에 대한 거리감은 늘 사용하던 꽃 쟁반, 이웃집 쓰레기통, 포도나무, 빨간 버선, 밥그릇, 조 씨 아저씨의 50년 전 얼굴 그림 등을 보며 훌쩍 줄었다. 처음에는 행사가 있을 때만 미술관에 왔던 마을주민들도 워크숍을 진행하며 편안하게 드나들었고, 지금은 문이 열려 있으면 일없이 자연스레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주민대피시설의 기능과 더불어 미술관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출발한 작은미술관 보구곶에는 보구곶 SNS나 블로그를 보고 시내에서 방문하는 관람객이 점차 늘고 있다. 작지만 이런 문화공간에 대한 갈망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김포 보구곶리가 보여준 작은 시도는 주변의 변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씨앗이 되어 옛날 김포와 현재의 김포, 신도시와 농촌 마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작지만 크고, 끝이지만 시작인 곳, 작은미술관 보구곶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전시기획팀 **이현수**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처음 장소를 접했을 때 우리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공간이라 매료되었던 부분이 커요.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는 철책이 둘러있지만 그 철책 너머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흐르는 한강이 있고, 평온한 마을 입구에는 노란색의 대피소가 있었어요. 대피소 뒷면은 시멘트로 된 큰 방호벽과 대피소 위 큰 확성기는 방공호의 차가운 느낌을 부각했는데 이 두 이미지의 아이러니함이 작은미술관 보구곶을 만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런 장소적 매력을 살려서 저희도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가며 저희 슬로건처럼 ‘작지만 크고, 끝이지만 시작인 곳’ 작은미술관 보구곶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획자 **김혜란**

작은미술관 사업과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작다고 하여 가볍거나, 작다고 하여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붙인 이유는 ‘적어도 이것만은 언제까지라도’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작은미술관 보구곶 매니저 **박성림**

주민분들이 미술관을 낯설고 어렵기만 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계시다가 한 번 방문하시고 두 번 방문하시면서 마을의 풍경이 그림이 되고, 당신의 집 앞마당에 버려진 자명종 시계조차 작품이 되고, 당신의 삶의 공간이 미술관에 작품이 되어 전시된 것을 보시고 눈을 반짝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호감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전시 작품이 바뀔 때만 오시던 분들이 길가다가도 들르시고 시내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시는 길에도 차를 세우고 잠시 들르시는 걸 보면서, 이곳이 이제 마을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집 안마당처럼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 들어오는 길 한강변 철책



민방위주민대피시설 옥상에 설치된 확성기



2017년 12월 7일 작은미술관 보구곶 개관식







전 시 명 <보구곶 풍경>전

전시기간 2017. 11. 27 ~ 2018. 1. 16

전시작가 이자영, 정소윤, 허정원, 강유리



전 시 명 <보구곶 사물>전

전시기간 2018. 1. 17 ~ 3. 9

전시작가 김은미, 박지윤, 우소영, 조수정

프로그램 <니트니트, 온기담기>

전시기간 1차 2018. 1. 24 ~ 2. 7
2차 2018. 3. 14 ~ 3. 28







전 시 명 <Fantastic Fictures 보구곶 사람들>전

전시기간 2018. 3. 17 ~ 5. 12

전시작가 강희주, 황진



우리 동네,
예술로 물들다

기존 미술관 2015-2016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
blog.naver.com/artterminal2016



첩첩산중 마을에 예술의 새싹을 틔우다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강원도 정선 사북에 자리한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지역이 가진 특수한 문화와 역사를 전시로 보여주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예술의 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술관에 대한 지역민의 낯섦과 거부감이 가득했던 첫해를 무사히 지나, 두 번째 해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을 속에 스며들어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각미술 불모지였던 마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미술터미널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작은 마을 버스터미널 속 작은미술관

정선 사북 지역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다. 폐광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강원랜드 카지노를 열어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모두 생업에 바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예술을 접할 공간이 마땅찮기도 했다. 예술이 메마른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6년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을 열어 2년째 꾸준히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관은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에 있는 지하1층 23평 공간에 자리한다. 터미널은 전국 24개 노선이 지나며, 동서울행 버스는 30분 혹은 한 시간 간격으로 운영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치는 곳이다. 이곳 지하 공간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상 대합실과 터미널 외부 공간 등에서도 시각미술전시를 열어 지역민과 사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각미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곳 터미널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거치는 곳이기 때문에 간혹 게임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치유의 공간, 마음의 평온을 찾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관이라는 곳을 가본 적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은 미술관의 역할은 아주 특별하다. 문화예술 소외층인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아직 새로운 것을 접하지 못한 학생 등에게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주고, 공유한다. 이들은 그저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왔다가 무심코 미술관을 둘러보고 감동한다.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과 지역 예술가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로 친근하게 다가가다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은 2016년 11월 19일, 개관전 <예술배송 택배>전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수십 회의 전시와 미술체험 워크숍을 열었다. 첫해에는 개관전과 <by the way>, <아라리 플랫폼 POP> 등의 전시를 통해 폐광촌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스토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지역 감성을 전달하고, 정선아리랑을 활용한 전시로 탄광 지역의 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7년에도 의미 있는 전시들을 이어갔다. 2월에 연 <구불구불 판타지>전은 개관 이후 4번째 전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불구불'이라는 주제를 시각미술 작품으로 선보인 전시다. 지역민을 비롯하여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석탄산업 쇠락 이후 탄생한 거대 관광산업 이야기와 그 이면에 자리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강원도의 계곡과 굽이치는 물,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미학적으로 접근하여 작업한 작품들로 지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이어서 4월부터 석 달 동안 <우리 동네 예술가>전을 'pure fine arts', 'cultural art', 'cultural assets'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석탄산업이 활발하던 시기부터 살던 주민들과 강원랜드 개발과 함께 이곳에 온 새로운 주민들이 함께 정을 쌓으며 희로애락을 겪는 이야기를 지역작가들이 작품으로 풀어낸 뜻깊은 전시였다. 10월에 연 <두루 봉(Bon)>전은 '골고루'를 의미하는 '두루'와 불어로 '좋다'는 의미의 'bon'을 합쳐 이름 지은 전시로, 모두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가들의 전시였다. 전시 이름처럼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며 잠시나마 즐거움과 휴식을 얻어 갔다.

11월에 연 <도시락>전은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시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미술관에 신청서를 보내면, 신청자에게 옛날식 네모난 도시락통을 보내주었다. 도시락통을 받은 작가들은 도시락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미술관으로 다시 보내왔다. 그중에 평면대상 1명, 입체대상 1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하고,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작품을 한 달여 전시하였다. 특히 사북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시에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 전시 연계 워크숍으로 작가들이 사북중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도시락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아이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미술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 멀리 태국에 사는 작가가 신청서를 보내와서 태국까지 도시락을 전하고, 작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지역 어린이부터 해외 작가까지 참여한 전시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이웃이 참여한 전시라는 친근함에 더욱 많은 지역민들이 찾아와 관람하며 큰 호응을 보내 왔다.

미술터미널은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한 전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시 등을 열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곳 사북을 알리고, 예술을 어려워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했다.

작지만 특별한 연말 깜짝 선물을 전하다

2017년 마지막 전시는 12월에 연 <이것이 두폭화이다>전이다. 이 전시는 연말에 여는 전시이니만큼 특별히 전시 첫날에 작은 공연을 열었다. 공연팀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몇이 앉아 있는 조용한 터미널 대기실 한쪽에서 음향을 설치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오후 3시쯤 조용한 터미널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소프라노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국악인이 함께 정선아리랑 등을 부르며 이색적인 공연을 펼쳤다. 처음에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 어색해 했지만, 열정적인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동네에 마실 나온 어르신과 강원랜드를 찾은 관광객, 배낭여행 중인 청년들까지 모두 함께 손뼉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함께 즐겼다. 30분 정도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미술관으로 발길을 이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두폭화는 접어서 겹쳐지는 작품을 일컫는다. 개체가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실체가 대칭을 이루는 모든 것들 포함한다. 즉, 생각의 대립 상태, 전쟁으로 대립하는 양대 국가, 여성과 남성, 낮과 밤, 태양과 달 등을 말할 수 있으며, 근원의 뜻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뜻을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도 있다. 비교적 어려운 주제의 전시이지만, 이런 의미를 모르고 보더라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갤러리에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한데 모아 놓은 작품과 부드러운 털을 활용한 작품, 자전거를 이용한 설치 작품 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하 미술관으로 내려와 입구에 마련된 음료와 다과를 먹으며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깜짝 선물을 한 셈이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역민과 함께 꾸려나가는 미술관

미술터미널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시와 연계한 예술체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작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11월에 연 <도시락>전시 기간에는 미술관에서 도시락을 활용해 작업한 작품을 감상한 후에 종이로 만든 도시락 안에 다양한 미술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난날의 추억이나 미래의 기대 등을 도시락이라는 작은 공간에 자유롭게 표현하며 예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또,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한 <Olympic_올림-pic>전시와 연계한 워크숍도 인기를 끌었다. 이 전시는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류 평화 등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들로 꾸민 전시였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염원을 담은 엽서를 만드는 워크숍을 매주 금요일마다 총 4회 열었다. 데칼코마니, 낙엽이나 잡지 콜라주, 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엽서를 꾸미며 표현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워크숍이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엽서를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추억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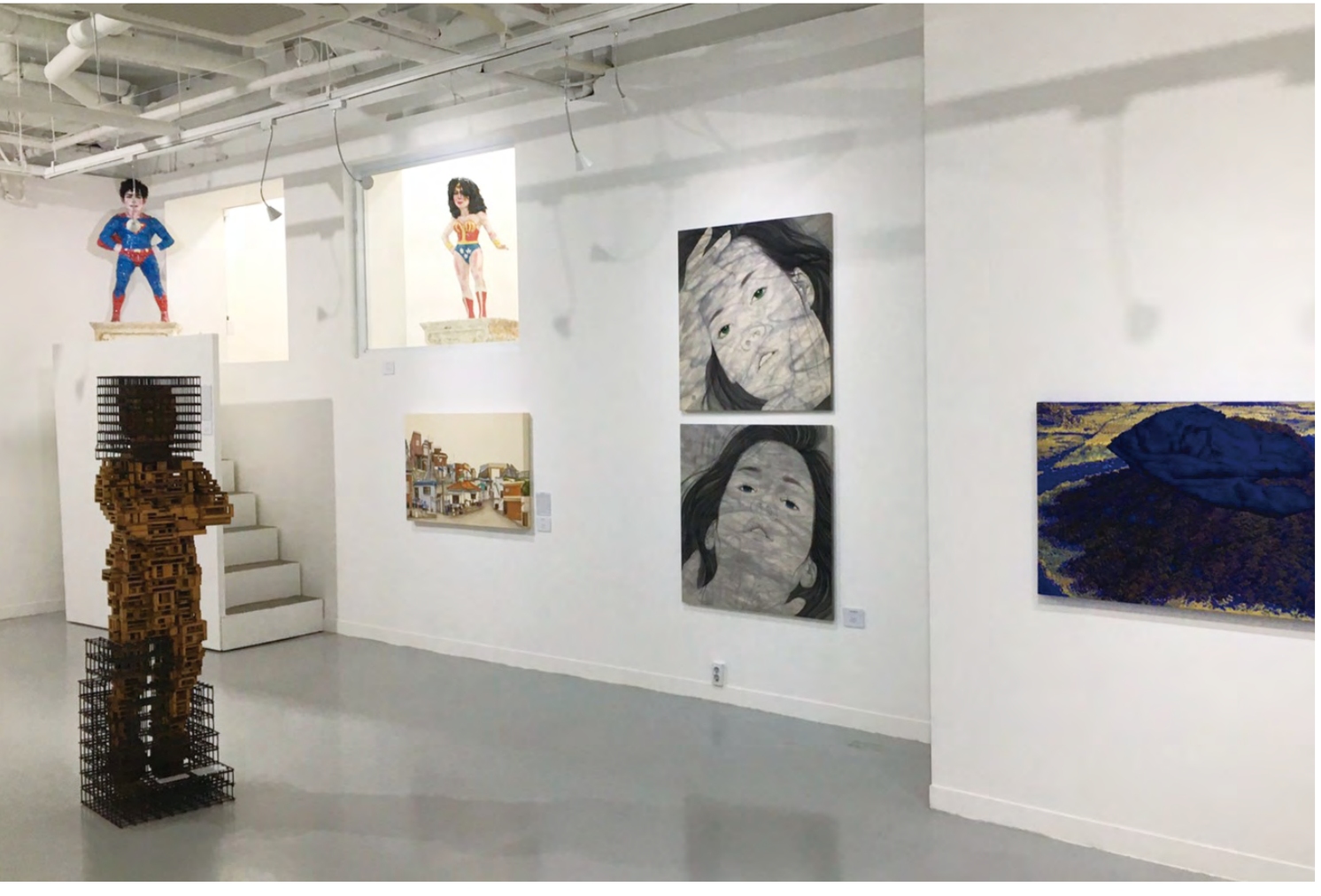
이처럼 미술터미널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며 지역 미술관으로서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미술이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미술을 쉽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이야기가 있는 전시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미술관과 지역민의 거리를 서서히 좁히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미술관을 전시와 워크숍 장소뿐 아니라 지역 동아리의 세미나 장소나 학생들의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미술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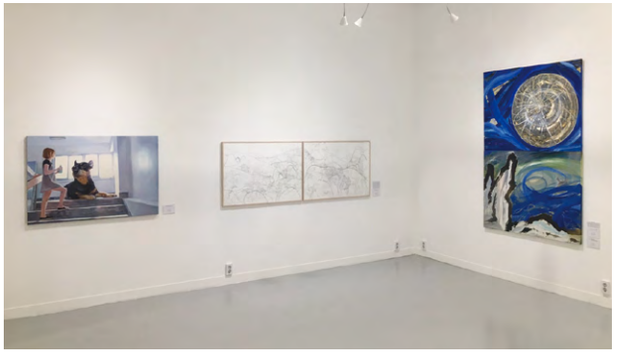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2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유진희**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초반에 미술관에 방문한 어르신들은 ‘공간이 이게 전부인가’, ‘뭐 파는 것은 없나’ 등을 물어 보시며 미술관을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터미널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체험 워크숍을 진행할 때 즐거워하는 주민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술관을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은 미술전시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미술관으로서 꾸준한 운영은 지원이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늘 함께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 문화적 제도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불모지인 이곳 정선에 우리 미술관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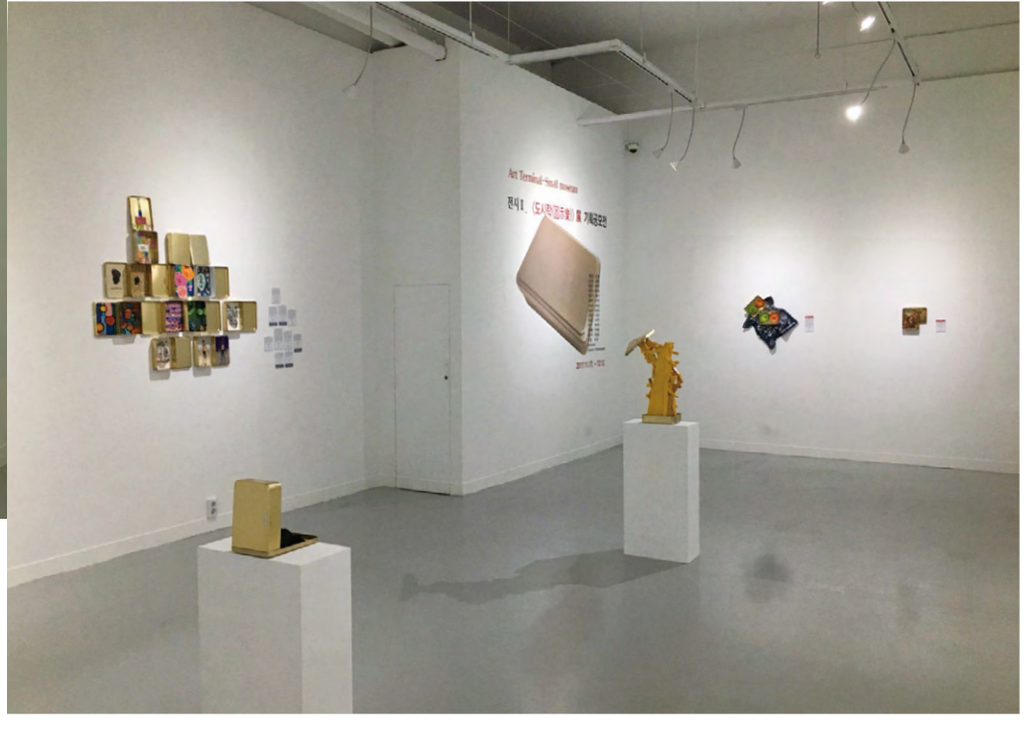


전 시 명 <두루 봉(Bon)>전

전시기간 2017. 10. 13 ~ 11. 14

전시작가 김대영, 강유림, 신석규, 구경은,
임상희, 박종하, 이후창, 유영운,
정우재, 이민주, 음정수







전 시 명 <전시Ⅱ_도시락 (圖示樂)> 기획공모전

전시기간 2017. 11. 17 ~ 12. 12

전시작가 권민아, 김기성, 김진아, 김현진, 박공우, 박기영, 박민우, 박수형, 박준식, 서용견, 성옥현, 오지연, 유도영, 윤세열, 윤송이, 윤제원, 은유영, 이상민, 이소윤, 이지연, 정주, 제티팍, 채태병, 천석필, 최근석, 최성환, 파랑, 허존, Markensu, Sarawut Chutiwongpeti







전 시 명 <이것이 두폭화이다(This is Diptych)>전

전시기간 2017. 12. 15 ~ 2018. 1 .16

전시작가 박식식박, 황필주, 강지호, 변웅필, 김용철, 류지선, 윤혜진, 변숙경, 최진욱, 이명환, 하수경, 이송준



전 시 명 <Olympic_올림-pic> 기획공모전

전시기간 2018. 1. 19 ~ 2. 28

당선작가 김최미, 표현우, 최순옥, 정예진, 노희진, 허존,
류지선, 박현진, 최승선, 이형우, Simona Soare
게스트 작가: Anna-Maria Beatrice Schultz, Anton Schult



솜리골 작은미술관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28-4

iscf.or.kr(익산문화재단)



아픔의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다

솜리골 작은미술관

전라북도 익산 평화동에 있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던 '익옥수리조합'의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에 개관했다. 익옥수리조합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경강 일대 비옥한 평야에서 나는 쌀을 일본에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기관이었다. 해방 이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 등록문화재 제181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9년에 익산문화재단이 본관에 입주했다. 부속건물은 창고로 쓰이다가 2016년에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어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개관 이래 미술관은 아픔의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무던히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또 한 번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어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술과 지역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의 행보를 따라가 보자.

미술관이 일상의 일부로 스며들다

2016년 솜리골 작은미술관을 열 때 미술관의 개관 목적을 지역과 지역민에 두었다. 예술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일상의 일부로 스며들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오래된 건축물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여 역사성을 보존하되, 내부는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밝은 모습으로 리모델링했다. 주민들의 사진으로 꾸며진 개관전 <그땐 그랬지>를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시행했다. 처음에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한 번 두 번 예술을 경험한 주민들이 점차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미술관 기획자와 큐레이터는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연락을 취하고 친분을 쌓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개관 이후 2년 만에 익산 주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익산 주변의 지역으로부터도 여러 관심과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과제는 있다. 하나는, 미술관으로서 좀 더 전문성을 띄는 작품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질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은 내용으로 미술관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작은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운영했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 미술관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지루한 전시가 아닌 신나는 전시

2017년 미술관의 새해 첫 전시는 정유년 <닭장파티>전이었다. 정유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 새해 소원을 적어 복주머니에 담기, 소원등 제작하기, 닭을 모티브로 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 퍼레이드 파티 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했다. 개관전 <그땐 그랬지>부터 이어진 전시 <일상다반사 협업>, <숨바꼭질>에 이은 네 번째 전시였다. 앞선 전시에서

참여하는 미술관을 이미 체험한 주민들은 <닭장파티>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닭장파티>의 성공적인 마무리 후에는, 미술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다. 그리고 여러 전시들 사이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전시도 틈틈이 지속적으로 기획했다.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에 열린 <그림 읽어주는 작은미술관>은 그중 하나다.

<그림 읽어주는 작은미술관>은 고전 그림과 예술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도슨트가 재미있게 들려주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고전 그림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넘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전시 작품들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안토니오 다 코레조의 '가니메데스의 유괴', 뭉크의 '절규' 등 총 25점이었고, 그림은 천에 프린트하고 작가들이 그 위에 질감을 입힌 작품으로 전시했다. 특히 뭉크의 작품은 <방공호 특별전 – 뭉크>라는 제목의 전시와 동시에 진행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라는 특수한 공간이 뭉크의 작품과 만나 더욱 특별한 미술 체험을 유도했다. 이 전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 주말에 평상시보다 몇 배의 관람객이 몰리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아이와 함께 전시를 관람한 한 어머니는 학교에 미술관을 추천하여 주중에 학교 선생님과 반 학생들이 함께 전시를 보러오기도 했다.

신인 예술가들에게 활짝 문을 열다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2016년 작은미술관 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역 예술가들의 큰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미술관은 익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화 거점이 되어야 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술관이 직접 공모를 열어 선정된 지역작가에게 무료로 대관을 지원하여 전시를 열었다. 무료초대 기획전 – 진인옥 <압화그림>, 안유림 개인전 <펜글씨와 글귀의 만남>, 최진희·한지희 2인전 <바람Dream> 등이 그 예다.

<펜글씨와 글귀의 만남>전은 2017년 8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안유림은 작가 노트에서 "평소 알았던 또는 알지 못했던 글귀를 손끝에 담아 쓴다는 것은 즐겁고도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감사한 일입니다. 작품에서는 글귀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함께 담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제각각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바람Dream>전에서는 두 작가가 하나의 주제 아래 우리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각자의 작품으로 선보였다. 두 작가는 "일상에 부는 새로운 바람에 우리를 맡기기로 했다. 표류 아닌 표류 속에서 흐르는 대로, 바람이 이끌어 주는 대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떠나보는 새로운 일탈은 서로 간의 인연과 만남을 좀 더 축복 속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류소라 큐레이터는 "예비 작가나 유망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 것이 큰 성과였다"며 "대형미술관에서는 전시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작가들에게 작가로서 한 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확장하는 미술관

미술관의 첫 번째 목표였던 주민과의 소통, 두 번째 과제였던 지역 예술가의 발굴과 지원 등에 대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미술관은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되었다. 미술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작품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술관으로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접근하기 쉽고 흥미로워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점이었다. 고민 끝에 기획한 전시가 <동네방네 현대미술>이다.

전시 제목 그대로, 동네방네, 즉 익산을 넘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6인을 초대했다. 강원도 정선의 김형구 작가, 남해의 심은영 작가, 김포의

김희선 작가, 인천의 김수환 작가, 대전의 권영성 작가, 그리고 익산의 강성은 작가 등이다. 강성은은 "집들의 정면에서 도시의 익명성을 보기 시작했다"며 "오로지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집들의 생김새에서 보이는 패턴화된 습성에 주목했다. 집에 대한 사적인 향수와 기억 그리고 감정들을 제거하고 그 물리적 외관을 형태적으로 파악하여 그림 그리기로 집의 견본"을 만들었다고 전시 작품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강성은이 '집'을 논했다면 권영성은 '지도'를, 김수환은 '가족'을, 심은영은 '바느질'을 이야기했다. 6인의 작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모던을 넘어 포스트모던을 논했다. 단, 전시의 방향성은 익산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이 전시는 지역에서 예술계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들에게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술계의 유행에 민감한 예술고등학교 학생과 미대생, 그리고 작가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다. 주민들은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고, 각 지역의 예술가들은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할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각 지역에 있는 작은미술관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생겨났다.

솜리골 작은미술관으로 '어서오시개'

2017년 여러 전시를 시행하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기쁨과 보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미술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2018년 미술관이 가야 할 길을 궁리하면서 새해 첫 전시 <무술년, 어서오시개>전을 활짝 열었다. <동네방네 현대미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을 넘어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한 터라, 욕심을 좀 더 냈다. 무술년 개띠해를 맞이하여 서른 명의 작가를 초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를 소재로 한 새롭고 풍성한 작품을 하나의 장으로 모아보자는 기획이었으나 개최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였다. 미술관에서 손을 내밀자 우려와는 달리 서른 명의 작가들이 모두 기꺼이 참여해주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전시가 막을 열었다. 오프닝에는 서예 퍼포먼스, 가야금 공연, 떡국 먹기 행사 등을 열었다. 작가들은 미술관이라는 장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칭찬과 격려를 나누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가득 채워주었다.

2018년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 류소라 큐레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계속 함께하며, 지역 너머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를 성장'시키며, '주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는 예술 공동체의 기반'이 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신인작가들을 지원하는 기획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5, 6월에는 신인작가들이 주도하는 <꽃봄>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솜리골 작은미술관에 들르는 것을 추천한다. 미술관이 존재하는 것은 찾아주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미술관으로 모일 때, 예술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싶다는 작은미술관의 꿈은 현실이 된다.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솜리골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류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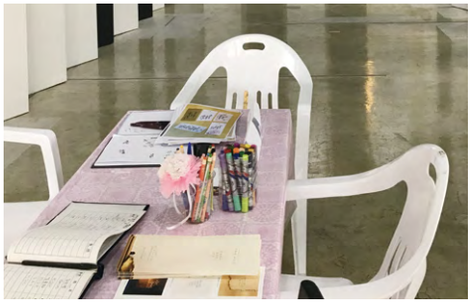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곳 솜리골 작은미술관에 있는 동안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곳에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이 들었습니다. 작은미술관이라는 특성상 오시는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미술관의 앞으로 발길이 무척이나 기대되고 걱정됩니다. 미술관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얼마나 오래 갈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다른 미술관과는 차별화된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색을 잃지 않고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마실 나온 기분으로 들를 수 있는 작은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에게는 항상 커피나 차를 권했고 편안한 한 마디라도 더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미술관에 한 번 왔다가 두 번, 세 번 들르신 분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끔 제가 정신없이 일에 쫓길 때면 평소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어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2017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8년에는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미술관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 시 명 <펜글씨와 글귀의 만남>전
전시기간 2017. 8. 7 ~ 8. 20
당선작가 안유림







전 시 명	<그림 읽어주는 작은미술관>전
전시기간	2017. 8. 23 ~ 9. 22
전시작가	한순애, 안보미, 이상원
부대전시	<방공호 특별전 – 뭉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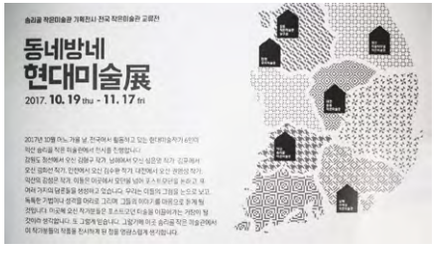


전 시 명 <바람Dream>전

전시기간 2017. 9. 24 ~ 10. 11

전시작가 최진희, 한지희





전 시 명 <동네방네 현대미술>전

전시기간 2017. 10. 19 ~ 11. 17

전시작가 강성은, 권영성, 김수환, 김형구, 김희선, 심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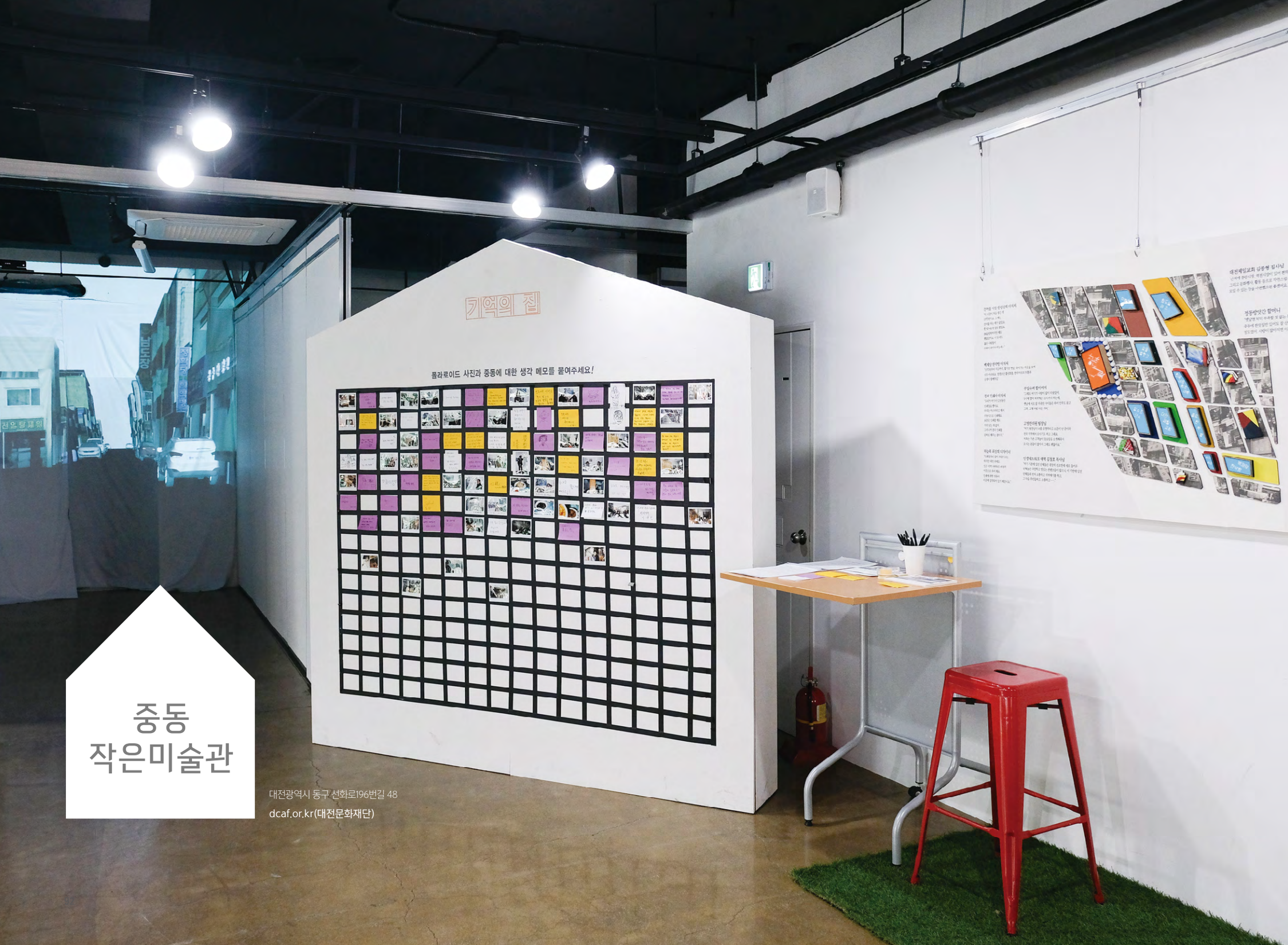




전 시 명 <무술년, 어서오시개>전

전시기간 2018. 1. 23 ~ 2. 13

전시작가 김행령, 김인숙, 김성욱, 송재영, 이승훈, 유은철, 김선경, 송현숙, 이수현, 송지호, 은호등, 고미영, 양광식, 김영실, 김순영, 한소윤, 최진희, 류일지, 김향숙, 정경자, 한순애, 이은하, 황현미, 송기대, 장미야, 임기숙, 최석우, 권찬희, 방기자, 이석중, 최현실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196번길 48

dcaf.or.kr(대전문화재단)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다

중동 작은미술관

1900년대 대전에서 가장 사람이 많던 동구 중동은 세월이 흘러 낡은 도시가 되었다. 극장은 문을 닫고 시장도 한산해졌다. 그러나 낡은 것은 낡은 것만의 가치가 있다. 새것에는 없는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생동하는 것이다. 역사와 추억이 있는 공간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시대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동 작은미술관을 만든 이유다. 옛 주민센터가 있던 건물을 뚝딱뚝딱 손보고 작은미술관이라는 간판을 내건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간 미술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주민센터가 작은미술관이 되기까지

대전 동구 중동의 신도극장, 아카데미 시네마가 연이어 문을 닫았다. 중동에 남아 있던 대표적인 문화시설들이 차례로 사라진 것이다. 한때 번성했던 인쇄소 거리와 한약재 거리는 남았고 새벽마다 건어물 시장이 열렸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 오랜 단골들이 상업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고 있지만, 동네에 이렇다 할 구경거리도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동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을이 쇠락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시에서는 중동에 새 활기를 불어넣고자 옛 충남도청, 중앙로거리 등을 개발하여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고 한약재 거리와 인쇄소 거리를 재조성하여 골목특화거리로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중동 작은미술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미술관 건물은 원래 중앙동주민센터로 사용되던 곳이다. 2010년 초반에 주민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이후 2013년까지 보훈회관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이후에는 지하에 헬스장만 남게 되었다. 그래도 헬스장 사장님과 회원들이 매일 건물을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관리해왔고, 주민들에게 여전히 친숙한 장소였다. 대전문화재단은 이 공간이 가진 친숙함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가들은 중동 골목길을 거닐며 행인들과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미술관 앞마당 벤치에 앉아 동네 어르신과 수다를 떨며 천천히 중동에 다가섰다. 2016년 10월 11일, 건물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중동을 비추다 – 예술가의 방>전을 열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들, 중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퍼포먼스와 공연, 다과 파티를 열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2일, 미술관을 정식으로 개관하며 개관전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로 다시 한 번 중동과 주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중동 작은미술관의 주인은 중동 주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미술관과 주민이 조금씩 가까워지다

개관전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에 이어 2017년 한 해 동안 총 5개의 전시를 부지런히 개최했다. <소소한 중동마을>, <O! 대전>, 시확산 시민운동의 <시 뿌리다 시 꽃피다>, <작은미술관 교류전 : 대전 '스며들다' – 인천 '담다'> 등의 전시를 차례로 개최했고, 스트링 아트, 그래픽 패턴 체험, 중동 돋보기 프로젝트, 소규모 환경조성 프로젝트 등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술관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주민들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지역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단기간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개관 전부터 여러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2016년 말 작은미술관 사업 첫발을 떼자마자 난방 문제가 골치를 썩였다. 작가들은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주변 환경이 낙후하여 동절기에는 오후 5시만 넘으면 주변이 깜깜해져서 운영에 불편을 겪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미술관으로 오는 길이 너무 어둡다', '밤길이 무섭다'는 의견을 다수 접수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길이 묘연했다. 동네 어르신은 미술관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제는 편하게 들락날락 못하겠다'며 푸념을 하시기도 했다.

2018년 현재,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개선하거나 해결되었다. 냉난방 장치는 개관 전에 무사히 설치 완료했고, 건물 자체의 안전 시스템도 완전히 구비했다. 2017년 조명을 소재로 한 소규모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중동 거리를 작가들의 작품으로 따뜻하고 환하게 밝혔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어르신들도 지속적으로 다가가 소통하고자 애쓰는 지역 청년들, 예술가들을 어여삐 보기 시작하셨다. '동네를 예쁘게 만들어 주어 고맙다'거나, '우리 집 앞에도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추운 날 고생한다면서 직접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주시는 분들도 생겼다. 대전문화재단의 담당자는 "말 걸어주니 고맙다고 하셨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서 작은미술관을 더 잘 운영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생동하는 기억의 재구성

2018년 1월 26일 중동 작은미술관의 새해 첫 전시 <기억의 재구성>이 열렸다. 1월 26일 서양화가 김정인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2월 2일 권인경 작가의 한국화 작품, 2월 12일 미디어 아트 그룹인 Craker의 인터렉티브 작품을 차례로 공개했으며, 2월 12일부터는 모든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기억의 재구성> 전은 중동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조각을 재구성하여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전시다.

김정인 작가는 콘크리트벽의 금, 건물의 외벽, 시장 간판의 뜯어진 글자 등 낡은 도시의 단면에 작가 자신의 기억과 감성을 투영하여 유화와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중동은 내가 살아온 동네와 흡사하게도 현재의 모습 속에 과거를 수반하고 있다… 평소 오래된 건물도 인간과 같이 긴장하고 감정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작업해 왔다. 이에 연장으로 <기억의 재구성>전에서도 소멸의 귀로에 놓여 있는 긴장한 건물들에 대해 선보일 것이다"고 작가 노트에 밝혔다.

권인경 작가는 중동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과 정물을 작가 특유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하여 화폭에 담았다. 작품 '건어물 상회의 간판'에 대해서 작가는 "중동 작은미술관에서 지척에 있는 건어물 시장 초입부의 건어물 상회의 간판이 인상적이었다. 낡은 나무판 같은 곳에 새겨진 상점의 이름 아래 주인장의 전화번호 같은 숫자들이 새기듯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재미났다. 마치 메모지에 휘갈겨 쓰듯 간판 위에 두서없이 적힌 번호들과 그것이 오래되며 바래서 알아볼 듯 말 듯한 느낌들을 트레싱지에 드로잉하여 전시장의 벽 자체를 바탕색으로 이용하여 나타내 보였다"고 설명했다. 작품 '시든 화분'에는 "겉면은 시들어 축 늘어져 있으나 뿌리는 여전히 살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시 봄이 오면 마치 저녁에 졌다가 아침에 피는 어떤 꽃처럼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상상을 하게 했다"는 작품 설명이 붙었다.

Craker는 김화슬, 김정훈 두 작가로 구성된 미디어 아트 그룹이다. 두 작가는 앞서 공개된 서양화, 동양화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중동을 이야기하며 관객이 작품을 체험하도록 유도했다. 작품 '반짝 마른 기억'에 대해 작가의 말을 그대로 빌려 설명하자면 이렇다. '반짝 마른 기억'은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현재를 상징하는 중동의 골목이미지를 지나면 종이죽을 말린 오브제들이 걸려있는 작은 방이 나타난다. 빛의 깜박임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한쪽 벽면에 전시를 보러왔던 사람들의 이미지 데이터들이 합쳐져 북적이는 과거(며칠 전)의 전시공간을 보여준다. 작품은 지역 주민들이 반짝였던 추억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길 희망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전시 기획자는 "중동을 다니다 보면 과거의 기억과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주민분들, 부녀회분들, 상인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겹쳐지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작가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전시를 소개하며,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다"며 공간의 의미를 되새김했다.

작은미술관 문은 언제나 활짝

<기억의 재구성>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중동 작은 다과회를 열고 지역 주민, 상인, 청년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을 채울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하고 있다. 미술관 개관 초기부터 야심 차게 기획했던 '가드닝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다.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대문 입구, 철장, 지역 골목 어귀 곳곳에 중동을 상징화할 수 있는 건어물, 인쇄물, 한약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활용한 화분 등을 꾸미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 상인들과 함께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상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예술가만이 아니라 신인 예술가, 예비 예술가, 문화를 즐기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실험적인 창작공간이 되는 것이 2018년 작은미술관의 목표다. 2017년 9월에는 커뮤니티 공간인 '청춘다락'을 2, 3층에 개소하며 청년과 예술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옛날 주민센터 앞 평상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처럼, 중동 작은미술관이 남녀노소 누구나 교류하는 마을의 활기찬 사랑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언제나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미술관이 되고 싶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임수진**

2017년 2월 정식 개관 이후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 속 미술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작은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지역 주민분들도 알아주신다는 점이 가장 감사합니다. 전시 때 필요한 물품을 빌려주시는 등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도 잦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주차금지판을 빌려주신 주민 분, 실리콘 작업을 직접 도와주신 인쇄소 사장님, 목공 조성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주신 지역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 상인분들과 함께 차도 나눠 마시며 지난 1년 남짓 미술관을 잘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미술관으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 시 명 <소소한 중동마을> 사진전

전시기간 2017. 9. 22 ~ 9. 29

전시작가 지역 청년 14인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소규모 환경조성 프로젝트>

전시기간 2017. 10. 31 / 11. 21 / 11. 28

참여작가 남승혜, 남미은



전 시 명 <O! 대전 – 거리를 보다>전

전시기간 2017. 10. 16 ~ 10. 29

전시작가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24인



전 시 명 <작은미술관 교류전 : 대전 '스며들다' – 인천 '담다'>전

전시기간 2017. 12. 12 ~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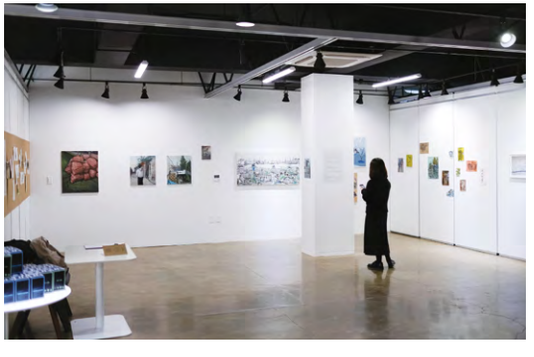
전시작가 임성빈, 예성호

전시장소 중동 작은미술관(대전), 우리미술관(인천)











전 시 명 <기억의 재구성>전

전시기간 2018. 1. 26 ~ 2. 25

전시작가 권민경, 김정민, Craker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존재만으로도 예술이 되는 공간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억척스러웠던 삶의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들어진 다랑이 논두렁 앞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그 바다를 품에 안듯 옹기종기 모인 아담한 동네들. 남해는 마치 지역 전체가 액자 속에 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다. 조선시대의 유배지였지만,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유배 갔던 당대 문인들이 많은 작품을 남긴 것처럼 남해군은 현재도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들어선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2016년에 이어 2017년까지 3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작가들과 지역민, 남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술과 어우러진 남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지역에 풍부한 감성을 더하고 있다.

흉물에서 이제는 마을의 자부심으로

공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빛을 잃는 것은 순간이다. 지금 작은미술관이 들어선 건물은 아픈 이들이 드나들며 치료 받았던 평산 보건진료소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이곳이 문을 닫고 폐쇄되자, 곧 마을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곳이라 주민들이 피해갈 수도, 보기 싫다고 마냥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어느 용도로 활용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치한 지 5년 차가 되던 때, 남해군은 작은미술관 사업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만났다. 게다가 이곳은 바래길 제 1코스인 다랭이지겟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해서 마을주민뿐 아니라 남해를 걷는 여행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선사해줄 터였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미술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기는 했지만 이곳이 사랑방으로 역할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남해군 역시 주민들에게 삶에 치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아름다운 풍광을 예술로써 다시 만나고, 지역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

문제는 어떻게 미술관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남해를 둘러싼 작가들과 작품을 담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문화재단이 없는 남해군에서 작가를 섭외하고 전시를 직접 기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만난 곳이 바로 대안공간마루다. 이곳은 비영리단체 미술가 공동운영화랑으로 미술인들의 발언의 장으로서 시작됐다. 창원에 터를 잡은 이곳은 전람회를 통해 대중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며, 소통을 목적으로 작가들과 네트워킹한다. 이 같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안공간마루는 남해 지역 작가는 물론, 작품까지 함께 선정하여 제공할 역량이 충분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과 여행길의 시작에 예술로써 아름다움을 더하겠다는 확실한 목적과 공간의 변신, 확실한 기획 주체의 만남까지 모든 요소가 모여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3년의 운영 끝에 주민들의 자부심으로서 깊게 자리 잡았다.

남해를 남해답게 담다

한려수도에 속한 남해는 79개의 섬을 품은 고즈넉한 광경이 일품이다. 육지와 바다, 섬과 섬을 잇는 무수한 점과 선이 만들어낸 면면의 풍경이 마치 보물처럼 빛난다. 2015년 9월 19일 열린 첫 개관전 <보물섬>에는 남해의 풍광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남수채화회장을 역임한 작가 5인이 인상적으로 꼽는 남해의 자연을 수채화로 담아 전시했다. 이 전시로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 속에 사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지역이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지를 지켜봤다. 이후 바닷바람을 주제로 작업한 다양한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을 선보인 <land·scape 바닷바람>전, 경남문화진흥원과 협업해 경남창작센터 제7기 청년 입주 작가 6인의 창작물을 전시한 <여섯 개의 신호>전,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보건소와 문화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미술관의 연계성을 모티프로 청년 작가들이 작업한 <치유와 소통>전을 거치며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미술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주민들은 물론 4만 5000명의 군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2015년, 연이은 네 차례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정립한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2016년에는 남해에 관한 담론을 시작한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남해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전시들을 선보였다. <Beyond Memory>전은 '남해의 기억에 기대어 있는 풍광'을 주제로 한 전시와 '역사적 사실과 자연회복의 이미지를 소환'한 두 차례 시리즈 전으로 진행됐다. 여러 명의 작가들이 직접 남해를 체험하고,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며 남해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갔다.

<Live life>전의 첫 번째 시리즈는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경남창작센터 7기 입주작가들과 함께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미술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실험적인 설치 작품과 회화 작품으로 남해를 표현해냈다. 두 번째 시리즈는 '화해와 소통'을 주제로 해 다섯 작가들이 마을주민들의 기억을 수집해 작품을 풀어냈다.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돕고, 지역과 주민, 여행자들 간의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서 바래길 작은미술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립했다.

2016년 작은미술관 사업의 마지막 전시로 기획한 <Future Lies ahead>는 2017년 초 열렸다. 지역의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미영, 김혜은, 심은영 작가가 일상과 생명의 소중함, 삶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한 사유를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으로 펼쳤다.

지역 작가들의 새로운 시선, 새로운 소통

앞선 두 해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자체의 존재감을 마을주민을 비롯한 여행객과 작가들에게 알리는 해였다면, 3년차가 된 2017년은 작은미술관을 통해 지역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던 해였다. 이는 여섯 차례 진행한 시리즈 전시, <Nouvel Objet>전에서 드러난다. 지역 작가들이 미술관을 중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8월 한 달간 열린 경남 출신의 작가 민선미의 <Nouvel Objet – Somewhere 화양연화!>전에는 삶에 대한 성찰과 물음을 바탕으로 작업에 천착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가장 좋은 시절을 의미하는 '화양연화', 그 꽃의 시간을 통해서 기록한 작가의 작품들은 한국화의 질박한 색감과 서양화 기법이 만나 새로운 세계, 화양연화의 시절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9월 오픈한 <Nouvel Objet – Another Time 화전(花田)>전은 여행자로서 남해를 오가다, 남해에 정착해버린 하미경 작가의 작품 30점을 담았다. '남해체류기'를 주제로 한 작가는 이제는 삶의 터전이 된 남해를 낯선 시선에서 낯익은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나날이 다르게 각인되는 시선을 작품에 펼쳐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한 세 번째 시리즈 <Nouvel Objet – Essay 섬>전은 섬의 느림과 빠름에 대해 주목했다. 남해에서 태어나, 남해에서 자라고, 전업 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유일한 작가 김서진은 섬에 존재하는 것들의 속도와 그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각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결국 닮아가는 모양을 고민하고 작품에 담았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열린 <Nouvel Objet – Landscape 남해풍경 그림>전은 남해를 더욱 풍성하게 완성하는 존재, 여행자들의 시선으로 작업할 6인의 작가를 섭외해 남해군민이 꼽는 남해의 절경을 작품에 담았다. 전병수, 이경태, 김희곤, 정종효, 하춘근, 강천석 작가는 이를 엽서로도 제작해 남해군이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했다.

11월 초에서 12월 초까지 한 달간 선보인 <Nouvel Objet – History>는 유배지 남해의 역사적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 소재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재구성했다. 남해해성고등학교 미술교사인 백종기 작가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2월에 열린 마지막 전시 <Nouvel Objet-communication 소통>전은 이규석, 김현주, 최문정, 감라영, 김영호, 강주연 작가가 유배지 남해를 소재로 접근해 그 속에 휩싸인 인간소통의 문제를 탐색해 다양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Nouvel'은 불어로 '새로운'을 의미하는 형용사다. 그 뜻처럼 2017년 작은미술관은 지역 작가와 더불어 소통하고, 남해에 소개된 적 없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남해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한층 키웠다.

작지만 힘 있는 파장을 일으키다

남해 서쪽 끝,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미술관을 짓고,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안공간마루라는 기획 운영 주체도 두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오픈했지만, 주민들로 시끌벅적한 다른 미술관과는 사뭇 다르게 그저 고요하기만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쌓여 3년이 지나자 주민들은 조금씩 미술을 이해하고, 공간을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꽃 그림처럼 쉽지도 않고 영 예뻐 보이지 않는 과감한 설치 작품도 이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마을의 고요한 풍경처럼 작은미술관의 시간은 더디지만 계속해서 물살을 가로지르며 작지만 힘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남해군이 작은미술관을 계기로 지역문화 형성과 지역 콘텐츠 생산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해라는 도시가 예술과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작은미술관이 자리를 잡으며 증명했기에 가능했다. 이후 남해군은 군내 유휴 공간에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며 남해의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의 자매 미술관이 생긴다는 소식도 놀랍다. 남해군은 미술관의 반대편인 동쪽 폐교 하나를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남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미술관이 두 개가 되기까지는 바래길 미술관을 중심으로 차츰차츰 모여 소통하기 시작한 지역 작가들을 통해, 자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는 분명 있다. 이제 막 자생력을 갖기 시작한 미술관의 운영 노하우를 완벽히 정립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미술관을 매번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야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남해군의 적극적인 움직임, 지역 작가들 간 유대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남해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미역을 캐러 다녔다던 바래길, 그중에서도 다랭이 지겟길의 시작. 과거에는 고단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예술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여행자들은 오늘도 감동의 길을 내딛는다. 그리고 미술관은 사람들이 그 순간 느끼는 예술적 감성을 직접 경험케 한다. 이토록 완벽한 경험을 선사하는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

“늘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기획자 **배부순**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평소에 미술관에 올 기회가 흔치 않았던 아이들이라 커다란 그림을 보는 것도 처음, 그림을 보고 저마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처음이라 무척 즐거워했답니다. 멋진 그림 잘 보고 가요.” – 남영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명록 글귀입니다. 남해에는 아이들도 많이 없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갈 기회가 더더욱 없지요. 2016년 개최한 <쑥쑥>전을 통해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너무나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감동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하나하나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은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제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미술관 가기’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었는데, 남해에 미술관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면서 더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이 다른 미술관들보다 과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고요한 풍경만큼이나 시간이 더디게 흐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미술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작은미술관은 이제 3년의 시간을 거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문화 거점이 되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전 시 명 <Nouvel Objet – Somewhere 화양연화!>전

전시기간 2017. 8. 1 ~ 8. 31

전시작가 민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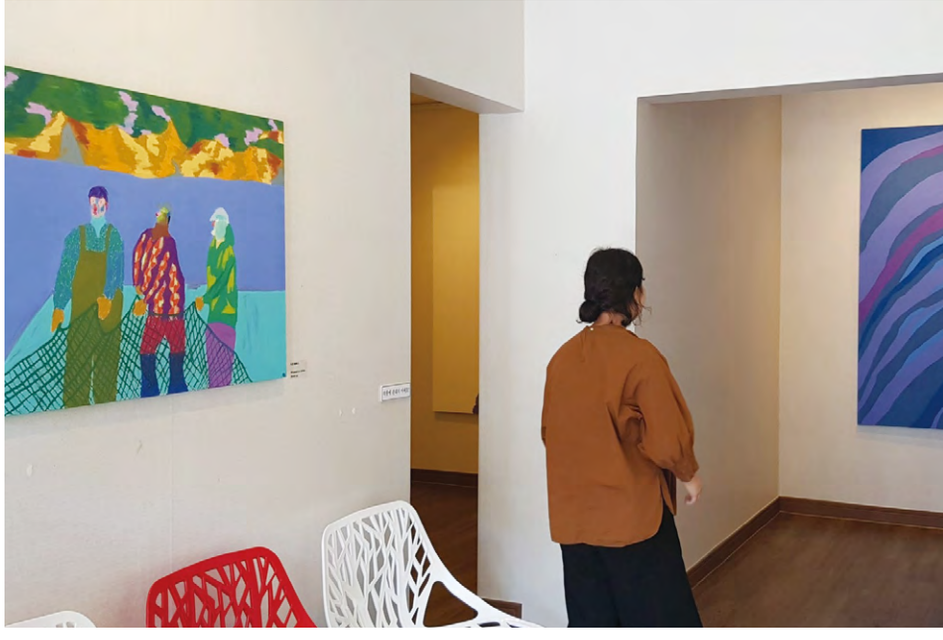




전 시 명 <Nouvel Objet – Another Time 화전(花田)>전

전시기간 2017. 9. 5 ~ 9. 24

전시작가 하미경







전 시 명 <Nouvel Objet – Essay 섬>전

전시기간 2017. 9. 25 ~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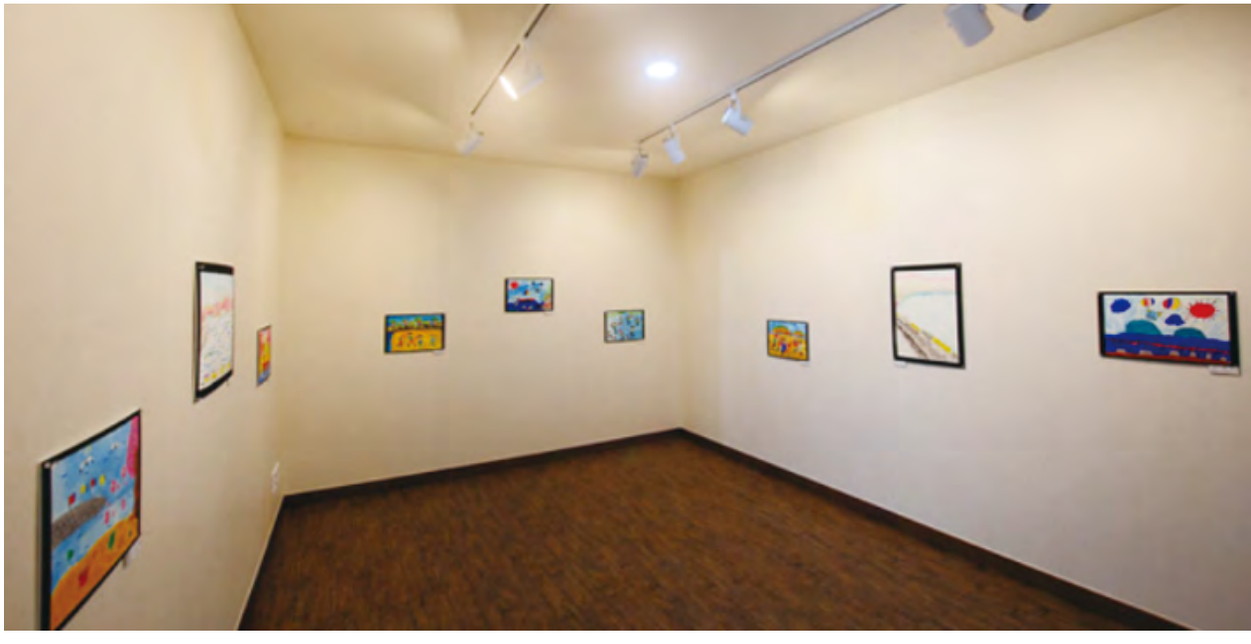
전시작가 김서진



전 시 명 <Nouvel Objet – Landscape 남해풍경 그림>전

전시기간 2017. 10. 16 ~ 11. 4

전시작가 전병수, 이경태, 김희곤, 정종효, 하춘근, 강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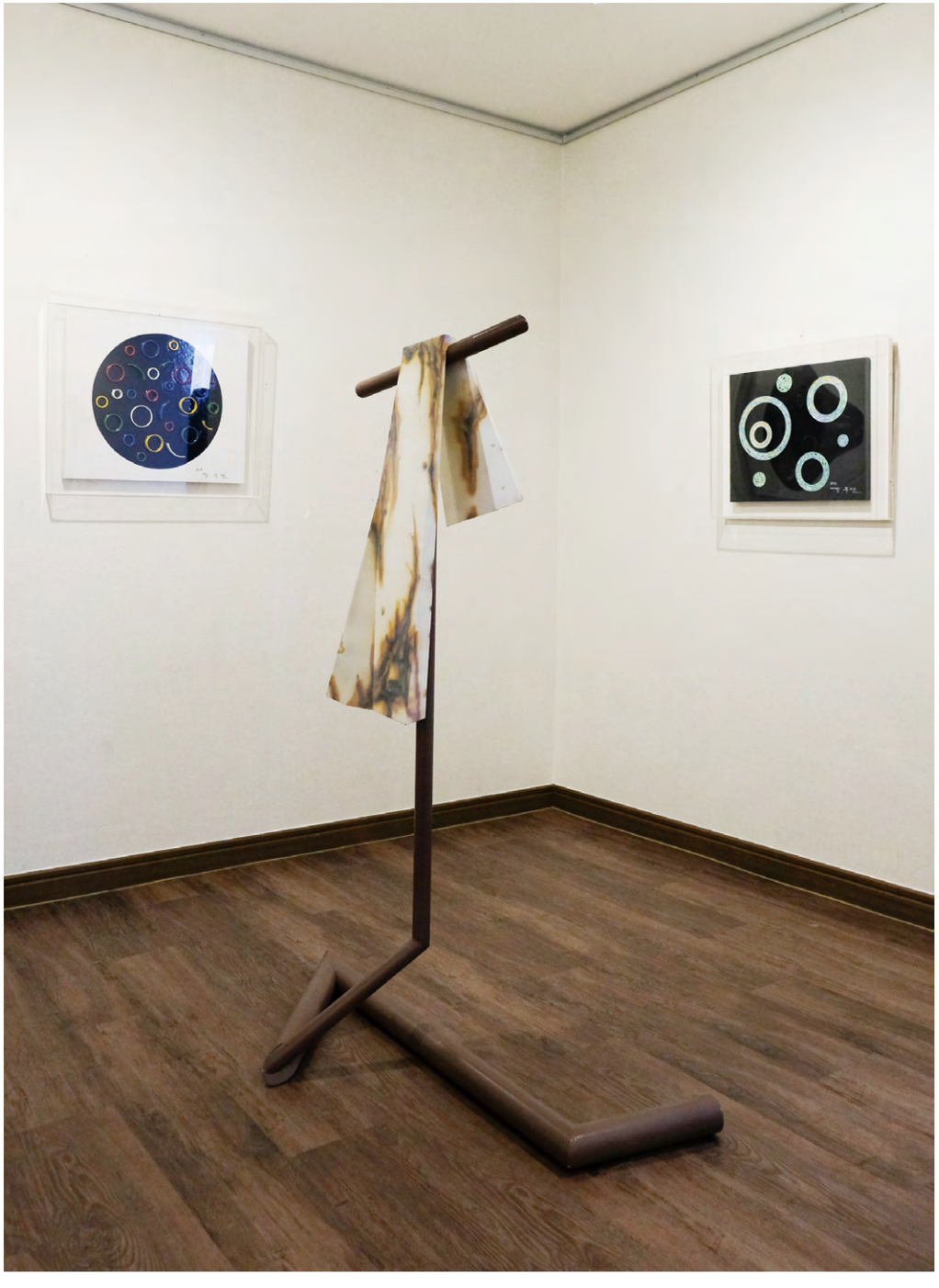


전 시 명 <Nouvel Objet – History> 연계 프로그램 <아이들이 읽는 남해로드>전

전시기간 2017. 11. 11 ~ 11. 18

전시작가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미취학 아동







전 시 명 <Nouvel Objet – communication 소통>전

전시기간 2017. 12. 4 ~ 12. 29

전시작가 이규석, 김현주, 최문정, 감라영, 김영호, 강주연



우리
미술관

전시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192번길 3-7, 9, 11
교육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186번길 10
wooriart.co.kr



예술로 동네에 숨결을 불어 넣다

우리미술관

삶을 둘러싼 공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행위에만 국한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간은 결국 한 사람의 감성을 좌우하고, 그 감성은 또 다른 행위로 재창조된다. 산업화 시기, 여러 지방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모여 산 빈민가로 대표되던 인천 동구 만석동. 개발 광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좁은 골목으로 연결된 얄팍한 지붕과 폐쇄된 작은 공장들이 삭막함만을 남긴 이곳이, 소외의 감성을 넘어 예술로 재창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작은미술관 운영 및 조성사업'에 선정된 우리미술관은 동네에 따뜻한 숨결을 서서히 불어 넣으며 사람들에게 만석동을 따뜻한 영감의 장소로 인식시키고 있다.

작은미술관의 큰 존재감

2017년 12월 2일 우리미술관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이 준비한 <괭이부리마을 이야기 동물편> 연극 발표회가 열렸다. 전래동화인 <괭이부리 호랑이>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다시 이야기를 덧붙이고, 무대 장치, 음악을 함께 만들며 완성한 작품이다. 2층 교육관의 아주 작은 공간, 약 15분가량의 짧은 공연에서 17명의 아이들은 유치원생 아이들다운 서투르지만 해맑은 연기로 부모와 친지들에게 뿌듯한 미소를 안겼다. 이 연극에는 경인여대 아동미술과 학생 30명의 도움도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세 달간 동안 매주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연극 프로그램을 도우며 문화로 마을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몸소 체험했다. 연극 초반, "동물을 쫓아내야 해!"라고 외치며 마을에 들어온 동물을 배척하던 아이들은 결말에서 선생님의 기타반주에 맞춰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목청껏 노래 불렀다.

다른 한편에서는 목공반 수업이 한창이다. 주부들이 실용적인 가구를 직접 배워 만든다. 자신이 필요한 것뿐 아니라 동네에 필요한 벤치를 손수 만들고 칠한다. 아이들이 연극할 때 무대 장치로 쓴 분홍색 벤치도 주부들이 직접 만들었다. 동네 어귀에 만들어 가져다 놓은 벤치에 하나둘 모여 앉은 노인들은 문화나눔 노인반에서 배우던 노래를 함께 흥얼거린다. 생전 처음 배워본 우쿨렐레와 난타의 리듬을 함께 떠올리니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2015년 11월, 마을에 처음 미술관이 생길 때 누구보다 낯설어했던 건 다름 아닌 주민들이었다. 주변에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 소외 구역에 거주한 지 오래된 그들에게 미술관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부자연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우리미술관의 첫 번째 미션은 미술관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가들과 동네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미술관의 문패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오고가며 주민들은 점점 미술관을 친숙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렵기만 했던 작가들의 미술 작품들을 이제는 좋은지, 좋지 않은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미술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다. 노인반, 어린이반, 목공반으로 나뉜 상하반기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수두룩할 정도로 인기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문화사랑방을 자처하며 시작한 우리미술관이 이처럼 진짜 동네의 거점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난 것은 지난 3년의 가장 큰 성과다. '작은미술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만석동 주민들 마음속에 이곳은 동네를 화사하게 바꾼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 만석동

개관전 <집과 집 사이 – 철, 물, 흙>과 <기억의 동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우리미술관은 총 20여 회의 전시를 진행했다. 모든 전시가 그랬지만 만석동의 지역성을 탐구했던 개관전과 마을주민들의 사진으로 미디어 작품을 만든 <사람꽃>전은 주민들이 지역과 이웃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예술로 승화되는 모습을 주민들은 늘 신기하게 지켜보고 들여다봤다. 그때마다 다른 수식어로 표현할 길 없어 "참 좋다"라고만 늘 감탄하던 어르신은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삭막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만석동 골목 곳곳이 나에게 영감으로 다가오는 경험. 이는 만석동을 찾는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폐허 속에 피어난 미술관이 마을에 더하기 시작한 색채를 계기로 만석동의 옹기종기 모인 작은 집들과 좁은 골목골목은 그들에게 색다른 작품을 창조하게 했다.

그중 하나가 백승기 영화감독이 지난 12월 기획해 연 <만석동: 전설의 시작>전이다. 유년시절을 만석동에서 보낸 백승기 감독은 현재도 만석동에 살며 미디어 작품과 영화 제작 등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만석동을 '수많은 주체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삼남지방의 세곡(稅穀)을 모아 두는 조창(漕倉)이 있어 쌀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만석동 지명에 착안한 그는 우리미술관을 새로 지어진 조창이라고 보고, 세곡으로서 3인의 작가를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레전드라 이름 붙인 이 작가 팀 중 최세진 작가는 '있는 그대로의 만석동'을 주제로 만석동 곳곳을 거닐며 발견하고 관찰한 것들을 드로잉하며 스토리텔링해 나갔다. 임기웅 작가는 '만석동의 새로운 호기심'을 주제로 괭이부리마을 동물에 대한 동네 주민 인터뷰와 동물의 시점에서 본 마을을 스케치 영상으로 제작했다. 아트토이를 제작하는 유재윤 작가는 '만석동으로 다양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동네를 둘러보며 만난 주민들과 공간에 상상을 더해 또 하나의 만석동 주민을 아트토이로 만들어 미술관에 입주시켰다.

9월에는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학생 7팀과 함께 <동구 밖 여행자의 아주 주관적인 7가지 질문>이라는 전시를 열었다. 이들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지역 곳곳을 다니며 관찰한 결과를 전시했다. 이들은 동구의 정체성과 미래를 찾고 상상해 그림, 디자인, 조형물로 만들었다. 이 전시는 우리미술관과 동구 아뜨렛길, 인하대학교에서 각각 진행되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만석동은 이제 도시화로 모두 똑같아진 아파트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미술관을 중심으로 주민들, 작가들이 함께 영감을 주고받는 문화예술 지역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의 현장

2017년 7월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전시가 있었다. <물에 잠기기 전의 기록 편>(2005)이라는 작품으로 제 5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한 중국의 리이판 작가가 우리미술관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 그렇게 성사된 리이판, 김태준 작가 초청 전시 <발전 그리고 혼란>은 중국과 한국의 두 작가가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변천하는 도시에 따라 살아가는 내적인 모습을 각각 사진 설치와 3D영상으로 제작해 전시했다. 이들의 전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로 도시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 그중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는 만석동 우리미술관에 전시되어 더욱 큰 의미를 남겼다. 지역의 현안

을 예술작품을 통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측면해서 우리미술관의 역량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전시기도 했다.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과 교류한 <담다>와 <스며들다>전은 작은미술관들이 서로 유대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애초에 교류전으로 기획한 이 전시는 두 미술관 간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삶과 밀접한 소재인 도자기를 중심으로 기획한 이 전시들은 각각 해당 지역에서 먼저 전시한 후 다시 교차해 전시되었다. 우리미술관에서 기획한 <담다>전은 예성호 도자기 작가가 지역 주민과 한 달간 워크숍을 진행한 후 자신의 작품과 함께 전시했던 뜻깊은 전시였다. 워크숍 마지막 날, 미술관 마당에 이동식 가마를 설치해서 도자기를 구우며 주민들과 벌였던 삼겹살 파티는 마치 동네잔치를 떠올리게 했다. 쌀겨를 태워 연기가 온 동네에 자욱했는데,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불이난 줄 알고 나왔다가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고, 작품을 감상하며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월 11일에는 미술관에서 진짜 동네잔치가 열렸다.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함께 '만석동' 세 글자 레터링에 각각 색을 칠하고,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이며 어르신들이 준비한 공연을 함께 보고 즐겼다. 이렇게 사람 간의 따뜻한 교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우리미술관은 계속해서 예술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와 전시를 주민들과 함께 기획해 나가고 있다.

레지던시, 주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다

2016년 우리미술관은 만석동 레지던시와 스튜디오를 조성했다. "턱을 낮추는 작업은 결국 주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이라는 구영은 담당자의 말처럼 인천문화재단은 더 활발한 마을문화재생을 위해 작가를 영입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창작문화공간 만석'에 입주해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주부들과 함께 만든 재연극 <시스터 액트 코리아>를 기획, 제작한 김재민이 작가를 시작으로 재단은 주로 커뮤니티 아트 작가들을 섭외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안겼다. 2017년 진행한 프로젝트는 <잠복자들>이다. 이들은 지역이 가진 삶의 지혜를 토대로 한 대안적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형식을 이용했다. 반찬, 가드닝, 피아노 등을 매개로 주민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덕분에 주민들은 좀처럼 배울 수 없던 취미를 배우고, 작가들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에세이 작품을 완성했다.

공간은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바뀐다. 70~80년대에 지어 창고로 쓰이던 스튜디오는 이제 1년마다 새로운 작가들에게 점령당해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시관과 교육관 조성, 작가가 거주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와 예술창작 공간 스튜디오 오픈은 예술성, 지역성, 예술창작을 고려한 기능적 구성을 완성한 것으로, 특히 레지던시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직접 소통하는 활동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새로운 레지던시 '창작문화공간 금창'이 문을 열었다. 동구 금창동에 열린 이곳은 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2017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미술관은 총 12회의 전시를 열었다. 총 61회 열린 교육프로그램에는 125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커뮤니티 아트 작가들과 프로젝트, 교류 전시 진행, 새로운 공간 오픈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우리미술관에서는 늘 벌어지고 있다. 차츰차츰 주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스며든 지 만 3년. 지금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우리미술관의 실험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미술관 3년을 일군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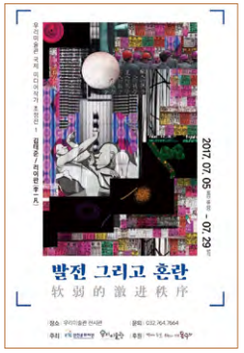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담당자 **구영은**

오늘 우리미술관의 모습은 사건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고, 열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미술관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미술관의 큰 성과입니다.

2015년 작은미술관 공모 당시 사업의 좋은 취지를 지자체에 설명하고 설득하여 공간을 지원받아 초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천문화재단 최선미 선생님의 노고가 없었다면, 작은미술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기반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애쓴 동구청의 김상규, 허재범 선생님이 없었다면, 만석동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활동가 이상선, 이상돈 선생님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지역 주민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문화나눔 강사 류은혜, 김규리, 박상명, 박가인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마을 잔치 때마다 봉사하신 만석동 주민의 노고가 없었다면,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미술관과 함께한 코디네이터, 도슨트, 사무 보조원 박희영, 최수진, 최명연, 김경희, 김연숙, 이순희 선생님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미술관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미술관은 만석동이라는 지역과 재원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많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시 명 우리미술관 국제 미디어작가 초청전 <발전 그리고 혼란>

전시기간 2017. 7. 5 ~ 7. 29

전시작가 김태준, 리이판





전 시 명 <동구 밖 여행자의 아주 주관적인 7가지 질문>전

전시기간 2017. 9. 19 ~ 10. 10

전시작가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학생 7팀











전 시 명 <담다>전

전시기간 2017. 10. 12 ~ 11. 3

전시작가 예성호, 만석동 주민들





전 시 명 <작은미술관 교류전 : 대전 '스며들다' – 인천 '담다'>전

전시기간 2017. 12. 12 ~ 12. 19

전시작가 임성빈, 예성호

전시장소 중동 작은미술관(대전), 우리미술관(인천)









전 시 명 <만석동: 전설의 시작>전

전시기간 2017. 11. 7 ~ 12. 12

전시작가 임기웅, 유재윤, 최세진

전시기획 백승기



발 행 인 최창주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061-900-2100(2200)
www.arko.or.kr

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디자인 · 제작 (주)인디엔피 indnp.com

취 재 · 원 고 소요프로젝트

발 행 일 2018년 4월

* 이 책의 내용과 이미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